

리아호나

아이어링 회장:

조셉의 모범

개인적인 계시의
본보기
12쪽

첫번째 시현을 통해 회복된
8가지 진리, 18쪽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22쪽

10달러짜리 지폐에서 배운
영원한 교훈, 28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미국 뉴욕주 팔마이라





회복의 초기에 스미스 가족의 집 근처 숲에서 있었던 첫번째 시현을 필두로 많은 중요한 사건이 팔마이라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다.
(왼쪽: 복원된 모습)

스미스 가족이 1817년에 매입한 숲이 우거진 땅의 면적  **100** (에이커)

 매년 성스러운 숲을 찾는 방문객 **100,000명**

스미스 가족의 집에서 쿠모라 산까지의 거리  **5KM**

 **5,000부** 팔마이라 그랜딘 인쇄소에서 인쇄된 몰몬경 초판의 발행 부수

팔마이라에서 48km 거리에 있는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을 때의 회원 수  **6**

- 1820** 첫번째 시현
- 1823**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다
- 1830** 몰몬경이 출판되고 4월 6일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다
- 2000** 4월 6일에 뉴욕 팔마이라 성전이 헌납되다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교회 유적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다.

사진: 앤 리즐 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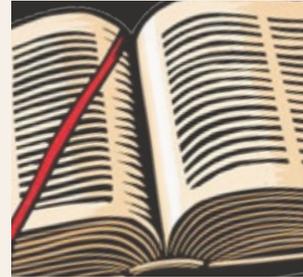
가족 역사를 통한 성역
8



회복을 기념하며
22



첫번째 시현: 개인적인 계시의
본보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12



첫번째 시현을 통해
배우는 여덟 가지
진리
18



성스러운 땅에서

올 해는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200 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숲에서 일어난 이 시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으며,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제게 개인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고, 제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교회 사적지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그 성스러운 땅을 걸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욕주 팔마이라에 있는 스미스 가족의 농장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온 각계각층의 방문객을 안내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미스 가족과 다른 초기 교회 회원들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이 12쪽에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우리에게 계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8쪽에서는 다른 총관리 직원들이 그 시현의 참됨을 간증합니다.

첫번째 시현의 200주년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카렌 러슨 네프 자매

목차

- 5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 6 신앙의 초상
에스터 콕스—미국 루이지애나주 ☺
에스터는 거의 잃을 뻔했던 아들과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한다.
- 8 성역의 원리
가족 역사를 통한 성역
우리 조상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다.
- 12 첫번째 시현: 개인적인 계시의 본보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삶에서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다.
- 18 첫번째 시현을 통해 배우는 여덟 가지 진리
선지자들이 회복된 진리에 관해 간증한다.
- 22 회복을 기념하며 ☺
가족과 다른 그룹을 위한 활동 아이디어.
- 24 와서 나를 따르라: 물문경 ☺
이번 달 물문경 학습을 더 훌륭히 해내기 위해 이 주간 기사를 활용한다.
- 28 10달러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럴드 코세 감독
사물의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32 후기 성도의 소리 ☺
몸이 다친 후 자신의 미래에 관한 의구심을 품게 된 한 여성, 특별한 책 한 권을 받게 된 부부, 단지 집에 가고 싶었던 한 남자,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음.
- 36 내 연차 대회 노트 ☺
2019년 10월 연차 대회
- 38 자립에서 오는 축복 ☺
영이 만드는 차이점
몰리는 자신의 제빵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재료를 발견한다.
- 40 자녀와 정신 건강에 관해 대화하는 방법 ☺
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한다.

☺ 짧은 기사



표지
『내 영혼의 소망』 윌터 레인

섹션

청년 성인

42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삶이란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들은 자신이
역경 속에서
어떻게 희망과
치유를 찾았는지를
이야기한다.



청소년

50

첫 번째 시현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배운다.
한 청년이 니파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셉
스미스가 보여
준다.



어린이
『친구들』

니파이가 했던 것처럼 배를 지어
본다. 브라질 회원들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 행복하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2월 온라인 전용 기사



조셉 스미스에 관해 공부하며 배운 네 가지 진리
제시카 넬슨

한 청년 성인 역사가가 교회 역사에 관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나눈다.



“왜”에서 “어떻게”로
리디아 타바에시나 피커드

호주에서 봉사하는 한 젊은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의 질문을 통해 자기 삶의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모든 걸 잃은 것만 같았을 때 신앙을 찾는 방법
제니퍼 에나모라도

온두라스의 한 회원이 삶을 뒤바꾼 사고를 겪은 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이야기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맥 요스트

한 청년 성인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얼마나 큰 선하심과 진실함으로 그 시간을 정하시는지 이야기한다.

2020년 2월호 제57권, 제2호
리아호나 16717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러셀 엘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아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랜드, 게릿 더블유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핑크
고문: 베키 크레이븐, 쉐런 윙버그,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윌터 에프 곤잘레스, 래리 에스 캐처, 아드리언 오호아, 마이클 티 링우드, 번 피 스탠필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홀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카밀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게릿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쟈슨, 예런 존스텐,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커, 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셸루, 로리 풀러 소사, 자벨 워들레이, 머리아 워디슨
편집 인턴: 메건 요스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러,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자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랜,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어, 에밀리 차에코 래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켈시 린포드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아이라 글렌 에데어, 줄리 버트,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머리아 엠 스미스
사건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살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47호, 제57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20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투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도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문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9 Vol. 43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여러분은

- 최신 호 리아호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불할 수 있습니다.(한국어 앱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동영상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질문과 피드백이 있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사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 구속주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 [되리라].”(엘마서 40:12)



2. 부활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겠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리라.”(엘마서 4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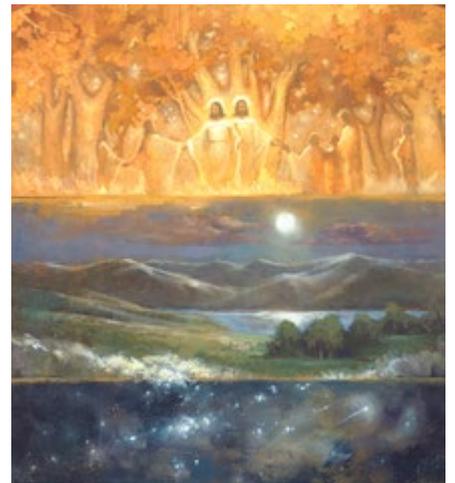
3. 심판

“모든 사람이 이 첫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리하여 그들이 불멸의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느니라.”(니파이후서 9:15)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 [는]’ 상태(모사이야서 5:2), 곧 엘마가 ‘마음[의] 크나큰 변화’ 라고 (엘마서 5:14, 26 참조) 묘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밝혀 내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심판자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니파이후서 9:41 참조) 그분의 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6:1)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행위와 ... 소망까지도 완벽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회개를 통하여 정결하게 됨」,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93쪽.



4. 영광의 등급

“만물이 그 적절한 질서로 회복되며, 모든 것이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되어 죽어야 하는 것이 일으킴을 받아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킴을 받아 끝없는 행복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거나, 아니면 끝없는 비참에 이르러 악마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리라.”(엘마서 41:4)



에스터 콕스

미국 루이지애나주



루이지애나주 남부에서 예전처럼 폭우가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 수해를 겪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에스터 콕스의 두 살배기 아들 매슈가 근처 도랑의 깊고 빠른 물살에 휩쓸렸을 때, 그날은 에스터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다. 에스터의 남편 조지가 매슈를 발견할 때까지 매슈는 15분 동안 물속에 있었다.

레슬리 닐슨, 사진작가

매슈는 유사 익사 상태에 따른 저산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이 생겼다는 의미였다. 그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를 내게 다시 보내주셨다. 매슈는 여전히 나의 아이다. 나는 20년 동안 매슈를 돌보고 있다. 우리에게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지만, 그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다. 매슈는 대단한 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셨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보여 주는 사랑은 그 어느 것에도 견줄 수가 없다. 매슈와 나는 서로 매우 사랑한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정말 그렇게 하신다.

더 알아보기

더 많은 사진을 비롯해 에스터의 신앙의 여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음 자료실이나 ChurchofJesusChrist.org/go/2206에서 이 기사의 온라인 버전을 참조한다.

ChurchofJesusChrist.org/go/2207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자료들을 알아본다.

성역의 원리

가족 역사를 통한 성역

누 군가가 가족 역사를 하도록 돕는 것은 성역을 베푸는 강력한 방법이 된다. 가족 이야기와 세부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조상과 연결되도록 우리가 도울 때, 그들은 미처 있는지도 몰랐던 가슴속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다.(말라기 4:5~6 참조)

평생 교회 회원으로 살아온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한다.

다음에 소개할 여러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깊은 감명을 받는 데는 보통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000미터 상공에서 가족을 찾아 낸 사람

최 근에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옆자리에 앉은 스티브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스티브는 내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에 통신 전문가로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곧 백악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미국 대통령을 위한 통신 지원 일을 했다. 18세부터 26세가 될 때까지 그는 두 명의 미국 대통령을 위해 일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스티브, 후손들을 위해 이런 이야기를 꼭 기록으로 남겨 보세요! 후손들은 당신이 본인의 관점에서 직접 쓴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그도 내 말에 동의했다.

그런 후, 나는 그에게 조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스티브는 1860년의 미 대통령 선거 기간에 시골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에이브러햄 링컨과 자신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한 이야기 등 모계 쪽 조상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FamilySearch[패밀리서치] 앱을 열었다. “스티브, 지금 당신의 가족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기내 무선 인터넷에 연결했고, 함께 볼 수 있도록 앞 테이블에 전화기를 놓았다. 우리는 패밀리 트리를 검색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스티브의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의 결혼 증서를 찾을 수 있었다.

스티브가 말했다. “그분들이 맞아요! 이제야 증조할머니 성이 기억나요!”

우리 둘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는 그후로 45분에 걸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스티브의 조상들의 개인 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했다. 그는 내게 콜로라도주에서도 계속 함께 검색할 수 있겠는지 물었다. 우리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연락처를



삽화: 디그 퍼렌

교환했다.

우리는 10,000미터 상공을 비행하면서 자그마한 휴대기기를 들고 스티브와 그의 가족이 생각도 하지 않았던, 100년 전에 결혼한 한 쌍의 남녀를 찾은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찾았다. 가족이 서로 연결되었고, 조상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다. 우리는 기술과 도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기적이었다.

조너선 페티, 미국 콜로라도주

성역을 위한 요리법

나와 내가 성역을 베푸는 애슐리 자매는 둘 다 할머니들이 쓰시던 요리책을 가지고 있다. 애슐리의 요리책은 증조할머니에게서 받은 것이고, 내 것은 우리 그린우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요리법 보관 상자를 물려받은 내가 책으로 엮은 것이다.

애슐리와 나는 각자의 요리책에서 요리법을 하나씩 선택해서 어느 날 퇴근 후에 그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로 했다. 애슐리는 바닐라 케이크 요리법을 선택했다. 우리는 케이크를 먼저 만들어 오븐에 넣었다. 나는 “핑크 칩 덩”을 골랐는데, 이것은 그린우드 가족이 잔치 때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이었다. 애슐리의 딸 엘리스가 맛 평가를 해 주었다. 그런 후, 아이들이 바닐라 케이크를 다 먹어 버리는 걸 원치 않았던 애슐리는 케이크를 잘라서 본인이 성역을 베푸는 자매들에게 전달했다.

함께 요리하던 그날 밤 가장 좋았던 부분을 꼽자면,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성역을 행할 때 흔히 그러듯이 그녀와 나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슴 뭉클한 시간을 보냈다.

제니퍼 그린우드, 미국 유타주

새로운 가족에 둘러싸여

마리아는 20년이 넘게 교회 활동이 저조했다. 몇 달 전, 우리는 집에서 인구 조사 기록과 다른 기록에서 마리아의 가족을 찾기 위해 그녀와 함께 두어 시간을 보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두 시간 만에 제 가족에 관해 평생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녀에게 패밀리 트리 앱에 있는 ‘내 주변의 친척 찾기’ 기능을 알려 주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나는 둘 다 마리아와 먼 친척 관계였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다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까운 지역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몇 주 후에 마리아는 감독님을 만났다. 그녀는 현재 성전에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와드에서 “새로운” 사촌들을 여러 명 만났다!

캐럴 리너 에버렛,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

성역을 베풀 어떤 기회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가족 역사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이다.

- 가족사진을 FamilySearch [패밀리서치]에 올리도록 도와준다.
- 가족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 중 특히 사진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녹음하여 FamilySearch[패밀리서치]에 올리도록 돕는다.
- 부채꼴 가게도나 인쇄 가능한 가족 역사 문서를 만들어 선물한다.
-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그들 자신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오디오 일지는 어떤가? 사진 일지나 동영상 일지도 있다. 일반적인 일지 형식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가 많이 있다.
- 성전에 함께 방문하여 조상을 위한 의식을 행한다. 또는 그들이 혼자 하기 버거울 정도로 가족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의식을 대신 행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 함께 모여 가족의 전통을 나눈다.
- 가족 역사반에 함께 참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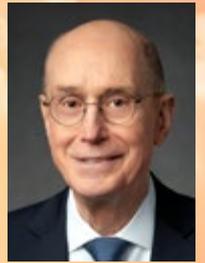
행하라는 권유

여러분의 성역 대상자들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가족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 경험이나 성역을 받은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첫번째 시현

개인적인 계시의 본보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스러운 숲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이라 불리는 시현이 일어난 지 2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셉의 선지자적 사명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께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그의 모범에서 배울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당시 14세의 조셉 스미스가 미국 뉴욕주 팔마이라의 숲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자녀들과 교통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읽었던 다음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5~6)

조셉 스미스는 두려움 없이 그 약속대로 행했으며,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받은 기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한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¹

하나님께서서는 지상에 사는 자녀들이 그분과 소통하기를 구하고 그렇게 할 자격을 갖출 때 그들과 소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에서 겪은 경험과 회복의 과정에서 홍수처럼 쏟아졌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²

하늘이 열리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로 보내시려는 진리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그분이 이미 보내신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경험도 그러한 예에 속합니다. 아마 그는 우리가 그렇듯이 야고보서와 성경의 다른 책들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성스러운 숲으로 이끌었던 메시지를 성신의 영향력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보내신 메시지를 발견한 그의 기록입니다.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야기된 극심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일 장 오 절을 읽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는 몰랐고, 또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전에는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교파의 종교 교사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너무나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성경에 호소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신념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11~12)

조셉 스미스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인식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왜 유독 한 경전 구절이 큰 권능으로 임했고, 엄청난 힘으로 그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파고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거듭해서 그 구절을 깊이 생각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조셉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마음이란 상한 마음을 말한다

조셉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상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약점을 용서받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조셉은 서로 다투는 여러 교회 중 어느 교회가 참된지, 자신이 어디에 가입해야 하는지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셉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의 구주라는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신앙과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셉은 그 당시의 감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했다. 내가 자비를 구할 곳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³

그는 야고보의 약속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여러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서는 조셉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상에 왔거나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와 그 가족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보다 큰 축복은 조셉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빛과 지식을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셉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범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 고리의 끝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한 조셉의 모범은 단순하고 따르기 쉽지만, 우리가 모두 그 동일한 과정을 한 단계씩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진리를



배우는 능력과 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조셉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빛과 진리에 관한 몇몇 계시가 참으로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준비의 본보기로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찬 기도문을 주셨을 때, 그분은 이 사실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라는 말을 들을 때면(교리와 성약 20:77, 79) 따뜻한 사랑의 느낌이 듭니다. 성찬 기도문의 그 구절을 들을 때면 제가 여덟 살 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침례탕에서 나오며 느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이 저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고, 정결해지는 데에서 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때로 저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주님이 그려진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럴 때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느낍니다.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저의 의지를 증거하는 기도문의 문구를 들을 때면, 저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영이 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들을 때는(교리와 성약 20:77 참조) 그것이 참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빛과 평안과 확신을 느낍니다.

열네 살의 조셉 스미스는 성스러운 숲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되는 동안과 그의 여생 동안 성찬 기도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계시를 지속적으로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본보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경전에 있는 말씀을 공부했다.
- 그는 자신이 읽고 느낀 것을 깊이 생각했다.
- 그는 자주, 그리고 세심하게 경전을 되풀이해서 읽었다.
- 그는 공부하고 상고함으로써 얻은 신앙을 바탕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 계시가 왔을 때, 그는 진리와 빛을 받고 자신이 받은 그 진리에 따라 생활했으며, 더 많은 진리를 구했다.
- 그는 경전을 다시 되풀이해서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그것을 기록했다.
-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종했으며, 그리하여 더 많은 빛과 가르침을 받았다.



넬슨 회장님은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를 때 오는 훌륭한 기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시를 구할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시급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께 향하여 응답과 위안을 구하십시오.”⁴

사탄은 계시에 반대한다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를 때, 여러분은 용기와 끈기에 대한 그의 모범을 주의 깊게 연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조셉이 성스러운 숲에서 겪었던 그런 저항에 맞닥뜨리지는 않겠지만,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조셉은 그 저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이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쳐 내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고, 한동안은 내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자 내 온 힘을 다하면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에—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어떤 실제적인 존재의 힘에—금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15~16)

조셉의 생애 내내 그런 끔찍한 반대가 계속되었던 것은 루시퍼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으로 이어질 계시를 중단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기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이 정도로 큰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용기와 끈기를 보여 준 조셉의 모범을 따라야만 합니다.

사탄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간직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더 교묘한 수단을 쓸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거짓 계시라는 그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며, 살아 있는 선지자나 계시도 없고, 조셉 스미스가 미혹되었으며, 여러분의 느낌과 성신의 속삭임이

“과도하게 흥분된 생각”의 착각이라는(앨마서 30:16) 등의 메시지를 받게 하려는 의도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조셉 스미스를 공격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거짓말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며,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후에도 재차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털끝만큼의 의심도 남겨 두지 마십시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셨습니다.⁵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저는 1분간 분명했던 영적인 느낌이 단 몇 분 만에 흐려지거나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제가 받은 느낌을 적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느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셉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는 첫번째 시현의 경험을 여러 차례 기록했으며, 수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그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 조셉도 말로써 계시된 진리를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지를 배웠습니다.

계시는 우리의 후손을 축복한다

조셉 스미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가진 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계시 중 일부만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다면, 선지자 조셉이 우리에게 준 것과 똑같은 축복을 그들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시현은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성신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느낄 준비가 된 사람들의 마음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 교훈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시대에 구주를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조셉 스미스—역사 1:17) 말씀하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신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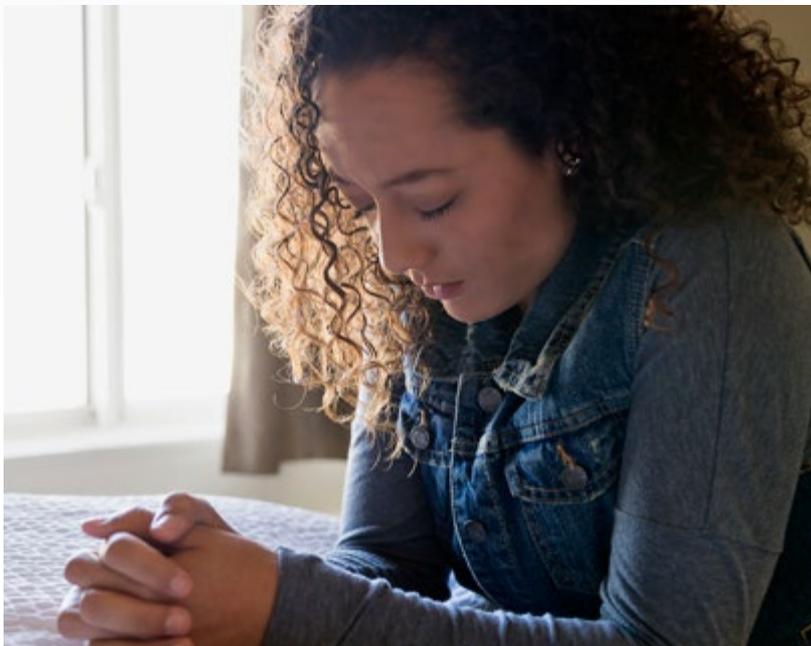
저는 다음과 같은 어린이의 기도에 대한 답이 “그렇단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어린이 기도 듣고 응답하나요?⁶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처럼,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성신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아가는 동안 매일 개인적인 계시의 빛과 진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주

1.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쪽.
3. 조셉 스미스, “첫번째 시현 기록”, 1832년 기록, 복음 주제 관련 글, ChurchofJesusChrist.org/topics/essays; 구두점 현대화.
4.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95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45쪽 참조.
6.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7쪽.





첫번째 시현을 통해 배우는 여덟 가지 진리

200년 전 어느 맑은 봄날 아침, 뉴욕주 북부 시골의 한적한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속성, 지속적인 계시의 필요성, 그리고 영적 어둠으로 오랫동안 잊히거나 흐려졌던 다른 영원한 진리와 관련된 수 세기 동안의 불확실성과 억측을 종식시켰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첫번째 시현을 “부활 후 지상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칭하며 이 경이로운 사건으로 지상에 회복된 여덟 가지 진리를 설명했다.¹

첫번째 시현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들 진리와 함께 첫번째 시현의 실재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드러난 진리를 증거하는 현대 선지자들의 많은 간증을 깊이 생각해 보자.



1.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를 지닌 존재이시며, 남자와 여자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조** 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의] 그 순간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제까지의 박식한 모든 신학자들이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²

“**하** 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기도를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 행동을 볼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할 입이 있습니다. 연민과 사랑을 느낄 가슴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재하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분의 자녀들입니다.”—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³

2. 예수 그리스도도는 아버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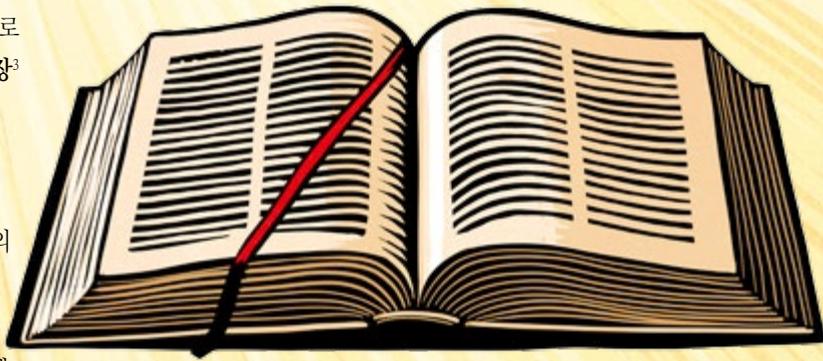
“**조** 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에서 서로 다른 두 인격체, 즉 두 분의 존재를 보았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신회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인 믿음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한 존재라는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와 그분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알며, 그 진리가 우리 교리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한 열쇠라는 사실을 믿습니다.”—앨런 에이치 옥스, 제일회장단 제1보좌⁴

3.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합** 당하게 성임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애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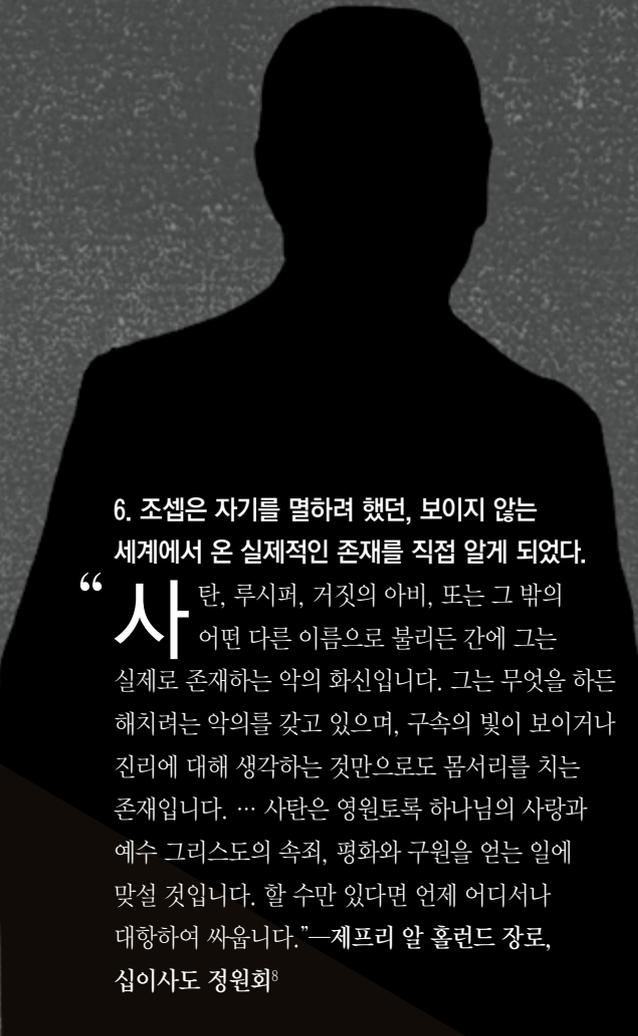
4. 예수님은 성경의 가르침처럼 계시의 전달자였다.

“**타** 락 이후의 모든 계시는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 아버지[엘로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과 직접, 친히 관계하신 적이 없으며, 아들을 소개하고 증거한 때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신 적도 없었습니다.”—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⁶



5.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야고보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패턴을 확립해 주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야고보의 약속에 이끌려, 소년 조셉은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시를 구할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시급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께 향하여 응답과 위안을 구하십시오.”—러셀 엠 벨슨 회장⁷



6. 조셉은 자기를 멀하려 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실제적인 존재를 직접 알게 되었다.

“**사**탄, 루시퍼, 거짓의 아비, 또는 그 밖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악의 화신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해치려는 악의를 갖고 있으며, 구속의 빛이 보이거나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치는 존재입니다. … 사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평화와 구원을 얻는 일에 맞설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대항하여 싸웁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⁸

7.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교회에 배도가 일어났으며, 조셉은 인간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으므로 어떤 종파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배**도, 즉 주님이 조직하신 원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일[은] … 처음에 교회를 세우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주의 재림을 열심히 고대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배교하는 일이 …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데살로니가후서 2:3)’—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⁹

8.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간증은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76:23; 또한 22절 참조) 저는 이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모든 분께 기도와 경전 연구를 통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실체와 속죄와 부활에 대한 증거를 구해 보시도록 호소합니다.”—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¹⁰

주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팔마이라 근처에서의 놀라운 시현」, 『리아호나』, 1984년 7월호, 100쪽.
2. 고든 비 힝클리, 「영감의 말씀」, 『리아호나』, 1997년 8월호, 5쪽, 번역 수정.
3. Thomas S. Monson,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in Conference Report, Apr. 1966, 63.
4. 델린 에이치 옥스, 「신화와 구원의 계획」,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00쪽.
5.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앞표지 안쪽.
6.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1955), 제1권, 26쪽.
7.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8. 제프리 알 홀런드, 「싸움 끝나는 날까지」,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4쪽.
9. 엠 러셀 벨라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39쪽.
10.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의 교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9쪽.

가족 토론

- 우리가 각자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한가?
-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느꼈거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느꼈던 때에 대해 이야기한다.
-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다른 가족에게도 간증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회복을 기념하며

가족 및 여러 그룹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 아이디어

200 년 전, 14세의 한 소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품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응답이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그 문을 열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가족, 청소년 그룹, 와드나 지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해설을 곁들인 음악 발표

회복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노래와 성구를 찾아본다. 이런 노래와 성구는 조셉 스미스—역사 및 다른 경전들, 그리고 회복에 관한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해설과 음악 연주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한다. 가능하다면, 14세 소년에게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미술 작품 전시

사람들에게 회복에 관한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한다. 작품 형식으로는 회화, 삽화, 조각,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복과 관련된 사건이나 주제를 선택해 미술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모든 작품을 함께 전시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한다.

성스러운 숲 활동

조셉이 했던 것처럼 방해받지 않는 평화로운 장소를 찾는다. 집 근처에 자연을 느낄 만한 장소가 있다면 그런 장소를 고려한다.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러 성스러운 숲으로 갔던 이야기를 읽는다. 참가자들에게 복음의 회복에 관해 그들이 얻은 간증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특별 노변의 모임

회복에 관한 발표를 준비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나 재능 있는 교사, 혹은 교회 역사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괜찮다.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여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권유한다.



경전의 힘

각자 경전을 가지고 오게 한다. 조셉 스미스는 답을 찾게 될 것이라 믿으며 경전을 공부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는다. 조셉은 이 구절이 “큰 힘을 지니고 [자기]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들었다고 말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12) 참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거나 그들의 질문에 답이 되었던 성구를 나누어 달라고 한다.

행진

개인이나 그룹으로서 회복과 관련된 사건, 계시된 진리, 축복 등을 보여 주는 소규모 행진을 계획한다. 상황이 된다면, 각 개인이나 그룹에게 자신이 행진 속에서 표현하기로 한 사건, 진리, 축복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어린이들로만 이루어진 행진을 할 수도 있다.

영화 관람

함께 모여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이라는 짧은 영상을 찾아 시청한다. 조셉의 모범에서 기도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토론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 들려주기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가? 아래에 있는 10개의 문장을 잘라 섞은 다음, 올바른 순서로 나열해 본다. 같은 내용을 여러 장 만들어서 누가 가장 빨리 끝내는지, 또는 누가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지를 보는 놀이를 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7~20절을 읽고 답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짝을 지어 그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에게 그에 관한 간증을 전한다. (올바른 순서: 3, 9, 8, 5, 7, 1, 10, 6, 2, 4)

1. 조셉이 평생 처음으로 소리 내어 기도한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에게 기존의 교회 중 어디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3. 조셉의 가족들이 기독교 교파 중 하나에 가입한다.
4. 조셉이 어머니에게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5. 조셉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기로 한다.
6.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7. 조셉이 숲으로 들어간다.
8. 조셉이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는다.
9. 조셉이 어느 교회가 옳은지 궁금해한다.
10. 사탄의 공격으로 조셉이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

배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니파이에게 배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설계도면도, 그리고 자재 주문에 필요한 물품 안내서도, 연장도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은 신앙과 근면한 태도,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뿐이었다. (니파이전서 17:8 참조)

토론

주님을 믿는 신앙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을까?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가족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떠났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그와 같은 어떤 여행을 하는 중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

목재

일반적으로 아라비아반도 연안에서는 목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니파이는 언덕으로 “나아가서” 벌목한 뒤 해변까지 힘들게 끌고 와야 했을 것이다. (니파이전서 18:1 참조) 그는 충분한 양의 목재를 얻기 위해 그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했을 것이다.



연장

목공 연장을 만들기 위해 니파이는 광석을 찾아 금속을 추출해야만 했는데, 광물이 든 암석을 채굴하고, 암석을 분쇄하고, 금속을 버리기 위해 불과 풀무를 사용하여 엄청난 열에서 농축된 광물을 제련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이었다. (니파이전서 17:9~11 참조)



신앙

니파이는 하나님께 뜻하신다면 바다도 마르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니파이전서 17:50~51 참조)



이미지와 사진: GETTY IMAGES

타락이 가져다준 축복은 무엇인가?

아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취하기로 한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였다.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은 축복 중 일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니파이후서
2:20, 25 참조)

2. 가족(니파이후서
2:19~20, 22~23 참조)

3. 성장과 발전
(니파이후서 2:11, 22
참조)

4. 선악에 대한 지식
(니파이후서 2:26 참조)

8. 부활(니파이후서 2:8
참조)

9. 영생(니파이후서
2:27 참조)

7.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속(니파이후서 2:5~10,
26 참조)

6. 옳고 그름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니파이후서 2:16, 26~27 참조)

5.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능력 (니파이후서
2:23~25, 5:27 참조)



우리는 사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세상에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
(니파이후서 9:6 참조)

토론

구주의 속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니파이후서 9:7,
19~23 참조)

영적 사망
“영의 사망”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
(니파이후서 9:8~10
참조)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이 커크 리처즈

육체적 사망
필멸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육신의 사망”
혹은 육신에서 영이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
(니파이후서 9:4~7, 10
참조)

해결책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니파이후서 9:11~12,
21~23 참조) 부활 후,
우리의 영과 육신은
재결합할 것이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해지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복음대로 충실히 살아야
한다.

“나뭇이 울릴 것이요,” 제이 커크 리처즈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2월 17일~23일
니파이후서 11~25장

구 주께서는 “이사야의 말이 위대함이라”라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상고하라고 명하셨다.(제3 니파이 23:1 참조) 이사야의 가르침 중 상당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과 재림에 관한 상징을 다룬다. 니파이후서 12~24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이 매우 소중했기 때문에, 니파이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들어올리고 기뻐[할 수] 있게 했다.(니파이후서 11:8)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부터~701년까지 선지자로 봉사했다. 무려 40년간을 봉사했다! 부름받을 당시 이사야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백발의 노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부름에 관한 이야기는 니파이후서 16장에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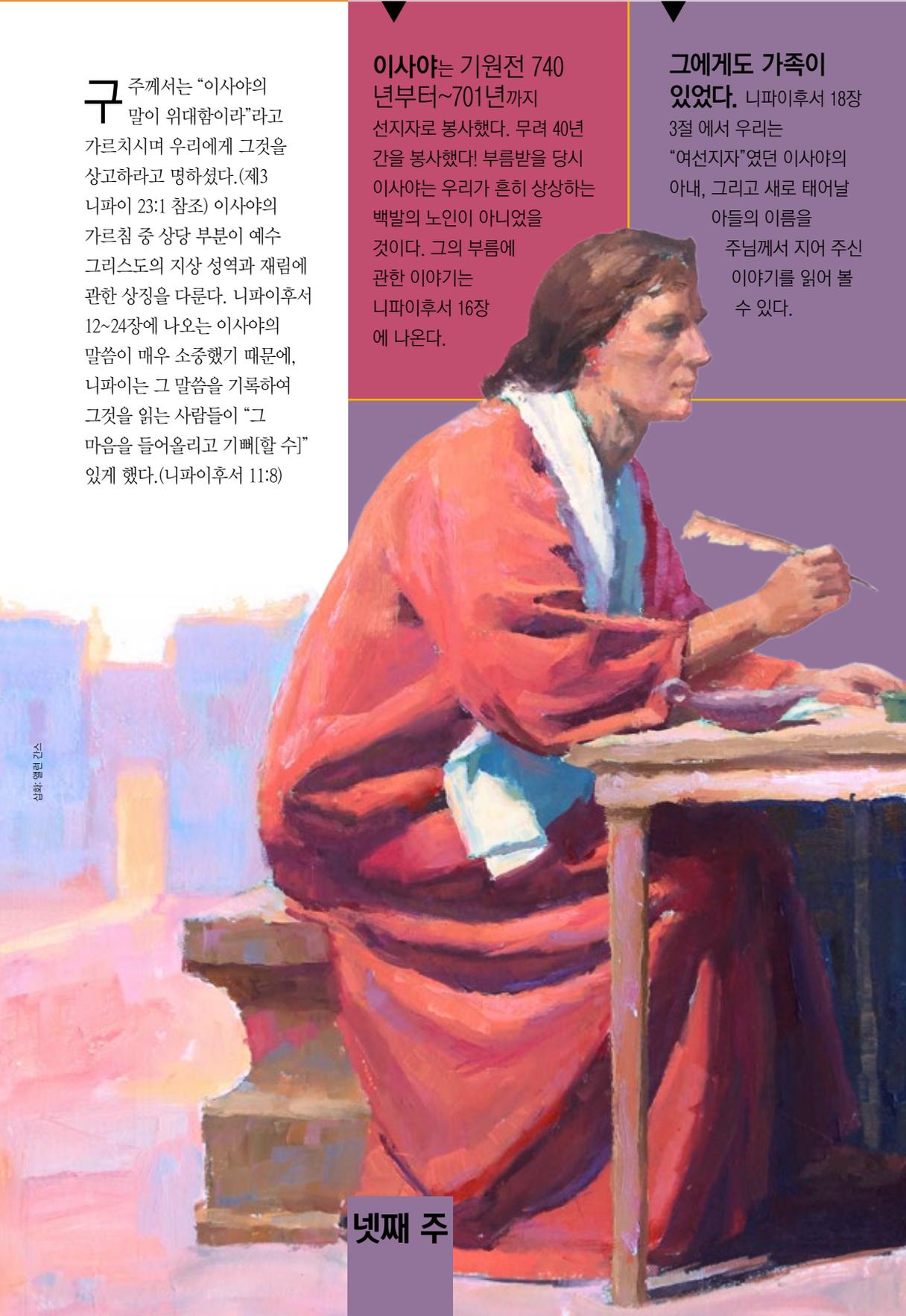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니파이후서 18장 3절 에서 우리는 “여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아내,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지어 주신 이야기를 읽어 볼 수 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수석 고문**이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지위는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겠는가?

이사야는 경전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선지자**이다. 이사야의 기록 중 32%가 몰몬경에 인용되었으며, 다른 3%의 내용도 풀어서 기록되어 있다. (『구약전서 학생 교재』, 제3판 [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 131쪽 참조)
이사야의 기록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인가?

이사야라는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을 이끌어 주는가?

넷째 주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10달러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십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며칠간 파리에 머무실 것이며, 제가 그분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서 회장님을 호텔로 모시고 가 휴식을 취하게 해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다음 날은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 장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회장이 꼭 가 보고 싶어 했던 장소 중 한 곳은 미군 묘지로, 그곳에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감으로 사망하신 그분의 형님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힝클리 회장님을 마중 나갔을 때, 그분은 그다지 피곤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세 회장님! 일하러 갑시다!”

힝클리 회장은 당장 묘지부터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묘지 방문은 다음날 하기로 이미 담당자와 약속을 해 두었기에, 그날 바로 그곳으로 갔을 때는 문도 닫혀 있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날에는 너무 바빠서 묘지에 다시 갈 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힝클리 회장은 저에게 (미화) 10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묘지에 갈 수 없어서 정말 아쉽군요. 회장이 저 대신 꽃을 사서 형님 무덤에 놓아 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꽃을 샀지만, 그 지폐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일요일 오후에 저는 가족과 함께 묘지로 가서 무덤에 꽃을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꽃이 놓인 무덤 앞에서 사진을 찍어 힝클리 회장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1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폐는 제 경전 안에 있습니다. “이 지폐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은 “10달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단 10달러짜리 가치가 있었던 그 지폐는 이제 제게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했던 순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물을
현세적 가치로
보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로
보니까?



삶에 영원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우리 삶에는 매우 유한하고 현세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달러짜리” 삶이라고 부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내일 우리가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라”라고 (니파이후서 28:7)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 지상의 삶에서 보내는 매 순간의 가치는 이생을 넘어 영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라”와 반대되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태복음 6:20)

다음은 사물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몇 가지 예입니다.



몰몬경 사진: 블라미 제프리



1 성전. 성전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저 아름다운 건물에 불과합니다. 성전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우리의 삶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는 장소입니다.

2 몰몬경. 대부분의 사람은 몰몬경을 그저 좋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책이라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책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3 십일조. 대부분의 사람은 “십일조를 교회에 바치는 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일조는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에 대한 신앙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충실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나타냅니다.



4 지혜의 말씀. 많은 사람은 이것을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것이라고만 말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계명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십시오

삶에서 현세적인 면과 영적인 면은 밀접하게 얽혀 있으므로 그것들을 애써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라.”(교리와 성약 29:34) 또한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이라. 원소는 영원하며, 영과 원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느니라. 그리고 분리되어 있을 때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3:33~34) 우리의 영은 육체 없이 완전해질 수 없으며, 부활이 있는 연유도 그 때문입니다. 승영은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와 단합 안에 존재합니다.

영과 함께 결정을 내리십시오

현세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님의 영과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으로 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가족과 상의하는 가운데 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3~24)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들은 우리를 교화하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며,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 삶에 빛을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것일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이성이 다른 것을 하라고 말할 때도 영적인 느낌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제 이성이 지시하는 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아내는 결혼을 결정한 후, 결혼 생활을 할 때



5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관계.**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육체적인 쾌락에만 국한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특히 성전에서 인봉된 이들 사이에서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 안에서 사랑과 단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6 **교육과 일.**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영적 원리인 자립을 이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독립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을 견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지내겠다, 성전에서 결혼하겠다 등이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통해 저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며 지속적이고도 깊이 있는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고객 연봉에 큰 책임과 인정이 따르는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직장 일로 너무 바쁘네요.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을 더 낼 수 있는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할지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기도했고, 직업을 바꾸어야 한다는 영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일을 그만둘 경우 제가 일하고 싶은 유일한 회사의 이름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3주 후, 저는 취업 정보 회사와 접촉을 했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이 끝나 갈 무렵, 취업 정보 회사 직원은 자신의 의뢰인 중 한 명이 방금 새로운 임원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언급했던 바로 그 회사에서 온 요청이었습니다. 그곳은 설립된 지 겨우 10년이 되었을까 말까 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그 회사에 채용되리라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주님께서 날 위해 뭔가를 마련해 놓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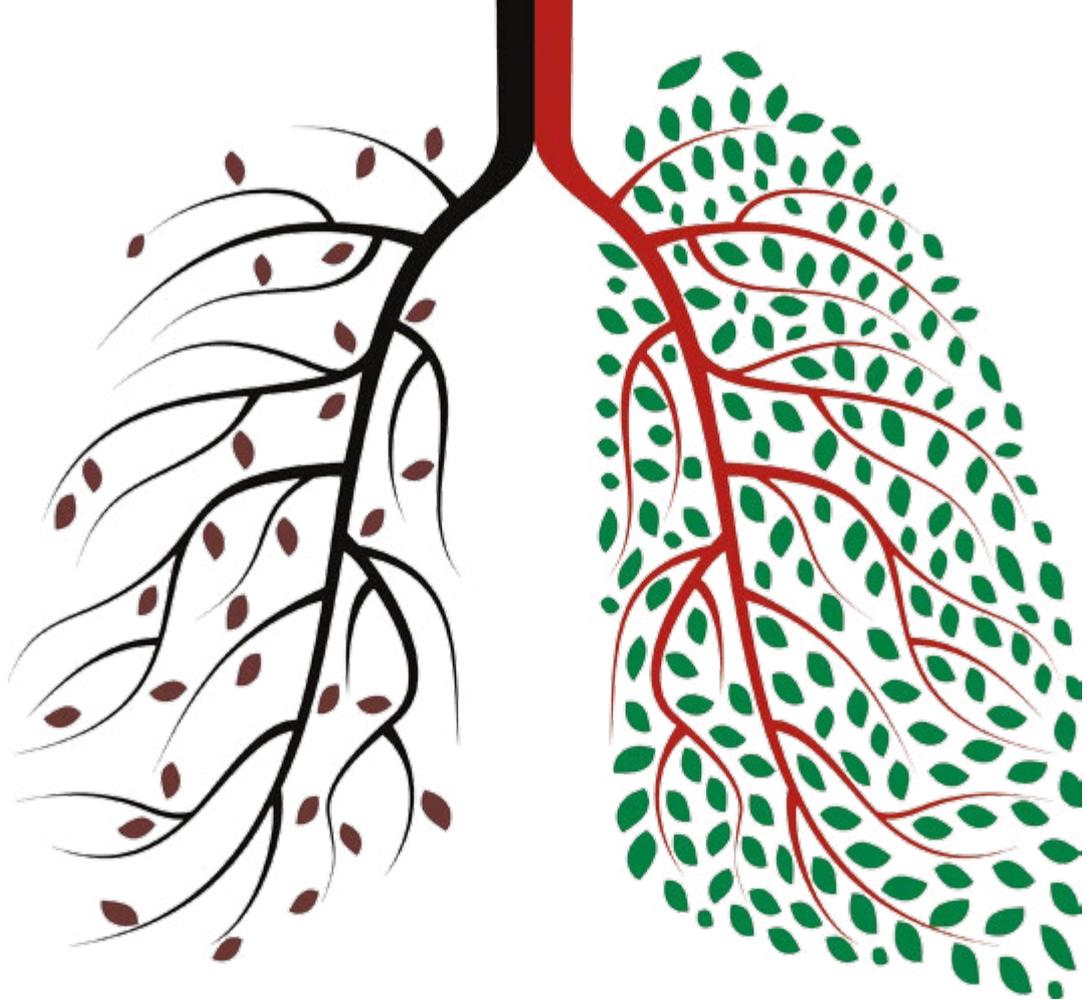
저는 금요일에 그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지적인 만족, 또는 사회적인 인정보다는 영의 속삭임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했고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영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를 보십시오

저는 영적인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희생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달러짜리”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생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한 비결은 우리 삶의 초점을 우리 존재의 목적에 두는 것입니다. ■

제 기능을 하는 단 하나의 폐와 굽은 척추를 가진 나는 전처럼 밝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다.



그분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양 쪽 폐가 비정상적으로 수축되어 황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나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을 마감할 준비가 되지 않았었으나, 몸은 나를 포기하려 했다. 그런 상태에 놓인 나를 지켜보는 것은 가족들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으나 그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고, 나도 축복을 받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제 기능을 하는 단 하나의 폐와 굽은 척추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 하루 하루가 고통과 힘겨움의 연속이었다. 계속 이렇게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내가 연약해졌음을 느꼈다. 희망과 자신감을 잃었고, 나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을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 주었으며, 친구들은 계속해서 내게 힘이 돼 주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예전처럼 밝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다.

기분이 아주 울적했던 어느 날 밤, 나는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어 보기로 결심했다. 축복문의 처음 몇 문장을 읽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대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느니라. 그분은 그대가 이 삶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노라.”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아주 밝은 미래를 예비해 두셨으며, 내가 그분께서 바라시는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축복들도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모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점을 아셨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겪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도록 하셨다.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지니신 사랑은 그만큼이나 원대하다. 나는 이 지상에서 보내는 모든 날 동안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을 것이며, 내가 그분들을 붙들고 따르면 그분들이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안다. ■

프레스스 귀우오, 필리핀 리잘

몰몬경이 우리의 선교사였다

조 카가 큰 사고를 당한 이후, 내 아내 아나마리아와 나는 서로 다른 수많은 종교와 믿음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싶다는 우리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어떤 교회가 참된지 알아낼 방법을 찾으시옵소서.”

5분 뒤, 전화벨이 울렸다. 한 친구가 건강 식품에 대해 알아보라면서 아내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려고 전화한 것이었다. 우리는 초대에 응했고, 그 집에 방문해 있는 동안 친구에게 몰몬경 한 권을 건네 받았다. 표지에는 이런 짤막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너희 부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해.”

다음 날, 나는 그 책을 바라보고는 다시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이 책이 참된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지 않은 책을 읽어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읽는 동안, 마치 내가 몰몬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책의 말미에 다다랐을 때, 니파이인들의 멸망에 가슴이 아파 와서 눈물도 흘렸다. 살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어 보았지만, 몰몬경만큼 나에게 감명을 준 책은 없었다. 나는 이 책이 참됨을 알았다.

어느 일요일, 나는 아내에게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배당에 함께 가 보자고 권유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그러자고 대답해 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들은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워드 회원들은 우리에게 혹시 선교사를 집으로 보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우리는 “몰몬이죠.”라고

대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몰몬경을 손에 든 선교사들이 집으로 왔고,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참 아름다운 책이더군요. 이미 읽어 보았습니다.” 내 말에 선교사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뒤이은 아내의 대답에 나 역시 깜짝 놀랐다. “저도 지금 모사이어서를 읽고 있어요.”

아내는 내가 매일 출근하기 전에 책상 위에 두고 간 몰몬경을 보고는 자신도 그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나중에 아내는

몇 주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자신도 집안 다른 곳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말해 나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나는 선교사들에게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토론을 가르쳤고, 2주 뒤에 우리 부부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몰몬경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참된지를 알도록 도와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

라울 에르난데스, 미국 텍사스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내도 집안 다른 곳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남편과 동네 샌드위치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너저분한 차림에 어찌할 줄 모르고 정신이 없어 보이는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다. 그가 우리 자리로 다가왔을 때, 나는 그가 돈을 구걸하지 않아서 오히려 깜짝 놀랐다. 그는 다만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로 가는 길을 물을 뿐이었다. 남편과 나는 길을 알려 주었고, 그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가게를 나갔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출발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주유소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를 도와주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주유소에 차를 대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남자를 찾아가 나를 소개했다. 그의 눈빛은 슬프고 지쳐 보였다. 얼굴에 깊이 팬 주름은 그의 힘겨운 삶을 말해 주는 것 같았다.

플래그스태프까지 어떻게 갈 계획인지 묻자 그는 걸어서 갈 거라고 답했다. 플래그스태프까지는 200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식사하고 있으시면 내가 다시 와서 버스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플래그스태프로 가는 버스표도 사 드리겠다고 말했다.

나는 트럭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았으므로,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가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친구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몇 가지 물품과 음식, 식수를 챙긴 다음, 패스트푸드점으로 가서 그 남자를 차에 태웠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이 가엾은 남자는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되뇌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집이 플래그스태프에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건 아니지만, 여러 해 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이 그곳에 산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2주 전에 출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출소한 또 한 사람과 버스 터미널에 내렸고 각자 버스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버스표와 적게나마 갖고 있던 돈까지 훔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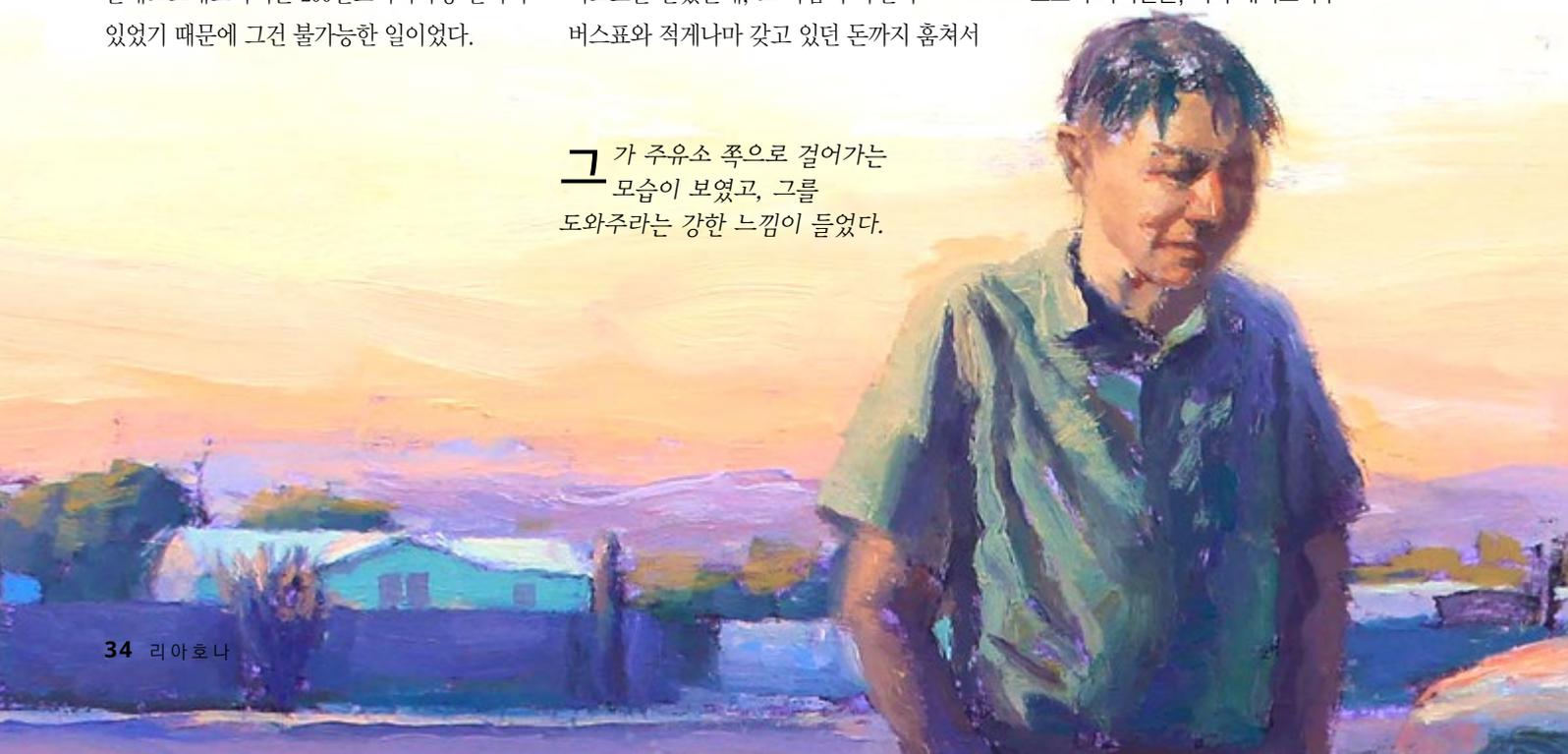
달아났다고 했다. 그는 그 이후로 내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또 한 번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나는 그의 버스표를 사고, 약간의 돈과 챙겨온 물품도 건넸다. 그는 고마움을 표한 뒤 자리에 앉았다. 친구와 차를 타고 터미널을 나오는데 그 남자가 했던 이 말이 계속 떠올랐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던가? 우리는 모두 지상에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랑 넘치는 집에서 멀리 떠나 있다. 누구든 길을 잃을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셨고, 또한 속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 남자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듯이, 우리도 구주 없이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
오드리 사이먼슨, 미국 애리조나주

그가 주유소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를 도와주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나는 오전 8시에 집에서 나와 온종일 일을 한 뒤 야간 수업을 듣고는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하곤 했다. 남편 대니얼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도 않았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언쟁을 벌였다. 상황은 심각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혼 직전까지 치달았다.

어느 일요일 저녁에 언쟁을 벌인 후, 대니얼이 이렇게 말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대니얼이 집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문을 두드렸다.

선교사들이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을 하나도 수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차례 토론을 하고 나니, 우리 부부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 평안하고 조화로운 느낌을 “마법 같다”고 표현했다. 그 느낌은 선교사들이 떠난 후에도 지속되곤 했다. 우리는 그 느낌이 우리 가정에 더 자주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선교사의 메시지에

힘입어 대니얼과 나의 관계에도 진전이 생겼다. 당시 나는 학업을 통해 직장에서 더 승진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에 중점을 두고,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를 더 낳기로 결정을 내렸다. 나는 학교와 직장을 그만 두고 남편이 운영하는 해충 방제 회사에서 그의 비서로 일했다.

선교사의 첫 방문이 있던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집에서도, 그리고 대니얼의 직원들과 함께 직장에서도 기도했으며, 교회에서도 봉사하기 시작했다. 대니얼의 사업은 성장했고, 그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다.

침례를 받고 일 년 후에 우리는 성전에 가서 인봉을 받았다. 인봉을 받고 며칠 뒤,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요일은 우리에게 녹록지만은 않다. 남편은 고등학교회 모임을 하러 일찍 나가고,



나는 교회에 가기 위해 아이 셋을 혼자 준비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 내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일요일에 주님을 섬기는 동안 가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는다라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간증을 얻었다. 남편과 나는 우리끼리 계획을 세우며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이 있었다. ■
클라우디아 제페다, 칠레 코킴보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성약의 길을 따를
때, 그분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강화하실
것입니다.”

호르헤 엠 알바라도 장로,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50쪽.

나와 함께 하라

“인생에서 보고 듣는
가장 감격적인 장면과
소리는 바로 우리 옆을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옆에
멈추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메시지,
의미, 그리고 군중」, 8쪽.

더 깊이 알아보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제자로서의 삶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여러분의 위대한 모범」, 87쪽) 우흐트도르프 장로를 비롯한 연차 대회의 여러 연사는,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가 지닌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했다.

-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을 참되게 따릅니까? ...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분에게 간청합니다. 실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연제인가에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며 온전히 헌신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터렌스 엠 빈슨 장로, 「구주의 참된 제자」, 11쪽)
- “성도들은 침례를 통해 복음 성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기쁨’이란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성도들의 기쁨」, 15쪽)

-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평생에 걸치는 과정에 헌신하도록 권유합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옛 방식을 깊고 소용돌이치는 폭포 속으로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반역의 무기를 손잡이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물으십시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심」, 25쪽)
-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갈 힘을 줍니다. 우리가 많은 군중 속에 있던 우리의 행동을 아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 있던 마찬가지입니다.”(리사 엘 하크니스,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함」, 61쪽)
-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비웃거나 학대하거나 해하려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88쪽)

여기에 나오는 쪽수는 모두 2019년 11월호 『리아호나』에 해당한다.

교회를 “6일 더 늘리는 것”

“『와서 나를 따르라』를 참고하여 경전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요일 교회 모임 시간을 한 시간 줄이고, 가정에서 한 시간 더 경전을 공부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배우는 것은 일주일 내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자매님은 통찰력 있게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교회를 한 시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6일 더 늘리는 것입니다.’”

마크 엘 페이스, 『와서 나를 따르라—주님의 대응 전략 및 사전 대책』, 46쪽.



어떻게 ...

계시를 받는가?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인 미셸 크레이그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교회의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계시를 구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찾고, 그 인도에 따라 행동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고안되었습니다.” 크레이그 자매는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를 받을 영적 능력을 향상할 네 가지 방법을 들려주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2. 즉시 행동한다.
3.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할 심부름을 여쭙는다.
4.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한다.

미셸 크레이그, 『영적인 능력』, 19~21쪽 참조.

영이 만드는 차이점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몰리 코흐만은 자립 서비스 과정과 성신의 인도 덕분에 창업할 용기를 얻었다.

레 크리에이션 치료 학위를 받고 10년간 정신 건강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어떻게 알록달록한 브라우니와 바닐라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디지털 가게를 열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몰리 코흐만의 대답은 간단하다. 2017년에 그녀는 창업과 사업 확장에 관한 12주 자립 서비스 과정을 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녀는 꿈을 이뤄 보겠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몰리는 말한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제과 전문학교에 다녔고, 유타주에서는 요리 학교에도 다녔죠. 저희 스테이크에서 자립 수업이 열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알아봐야겠어. 난 항상 창업을 꿈꿔 왔잖아. 다른 경영 수업도 많이 들어 봤으니까 더 배워서 나쁠 건 없겠지.’”

그러나 그 과정은 여느 경영 수업이나 제과 과정과는 달랐다. 몰리는 그 과정이 특별했던 이유를 그곳에 성신이 함께했다는 것과 그 과정을 듣는 회원들 사이에 끈끈한 우정이 있었다는 데에서 찾는다.

“경영과 관련된 토론도 물론 훌륭했고 도움이 되었지만, 그 토론에 어우러진 영적인

측면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재능과 혼란

몰리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당시는 자살 예방 센터에서 일할 때인데, 이렇게 창업을 위해 여태 모아 둔 돈과 시간, 열정을 모두 쏟아붓는 것이 과연 제가 가진 자원을 사용하는 최선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첫 번째 수업에서 몰리는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이 성공을 거두고,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는 일을 생업으로 선택하길 바라신다는 것에 대해 토론했다. 몰리는 그룹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키시나요?”

그룹이 그녀의 질문을 토론하는 동안, 몰리는 자신이 단순히 초콜릿 케이크만 팔게 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일단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그녀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뜻깊은 일에 기부할 재정 자원을 얻게 되며, 후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사회사업 분야에서 다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도 있을

것이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토론을 하고 나서야 그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과 이렇게 같은 방에 모여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각자 다 사업의 진척 수준이나 처해 있는 인생의 시기가 달랐어요. 하지만 영이 그곳에 함께하면서 수업 때마다 우리의 토론을 확실히 인도해 주었어요. 저는 창업을 하는 것이 제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브라우니와 축복

12주 과정 중 절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 몰리는 브라우니를 구워 자신의 자립 그룹에 속한 열 명의 회원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한다. “그걸 싫어할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요. 몇몇 분은 제게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기도 하셨어요. 저는 향미료와 장식용 크림, 재료를 다양하게 써 보기 시작했고, 과정을 마칠 때쯤에는 제가 팔고 싶은 제품에 대한 꽤 좋은 아이디어도 생겼죠.”

몰리는 자신의 그룹과 매주 함께 만나고,



한 주 동안 실천하기로 결심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지를 배우고,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알려 주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한다.

“그 과정 내내 우리는 모두 함께였고,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축복과 지지를 받는다고 느꼈어요. 그 수업은 제가 파악해야 했던 모든 것을 알도록 도와주었죠.”

2018년 가을에 브라우니 가게를 연 몰리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자립 과정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여전히 그녀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사업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하겠지만, 영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그것이 분명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토론을 했었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상황이 버거워질 때면 저는 아침에 혼자 일하면서 경전이나 연차 대회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평안함이 깃들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만족감을

표하는 손님들과 더불어, 그 평안함을 통해 몰리는 긴 업무 후에도 계속해 나갈 힘을 얻는다.

그녀는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일을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더라도 그랬을 거고요. 이건 정말 훌륭한 기회예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일이니까요.”

몰리는 자립 과정 덕분에, “시도해 볼 기회를 축복받았어요.”라고 말한다. ■



자녀와 정신 건강에 관해 대화하는 방법

본 기사는 가족 서비스 상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다.

대화를 시작하는 5가지 방법

- 불편한 감정도 삶의 일부이란다.
때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근심에
휩싸여도 괜찮아. 이러한 감정이 항상
네가 잘못을 저질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다.
- 네가 다리가 부러지면 의사가 도와주지
않니? 마찬가지로, 네 생각과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해야만 한단다.
- 실수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야.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란다.
- 심호흡이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운동, 그림 그리기와 같은 활동은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단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단다.
-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나 괴로운 생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도 한단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기능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겪기도 하고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란다. 우리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단다.

대화법에 관한 조언

- 자녀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묻고, 그런 다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요즘 어떤 생각이나 걱정을 하고 있니? 네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니? 최근 들어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니?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니?
- 자녀가 하는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자녀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주제에 관해 여러분이 아는 것을 한 번에 다 말해 주는 대신 기본적인 정보로만 질문에 답해 준다. 그런 다음, 자녀의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만약 자녀가 관련된 질문을 더 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더 많은 질문을 한다면, 더 자세하게 배울 준비가 된 것일 수 있다.
- 해당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과 자녀가 말로 표현하는 감정이 서로 다를지라도 언쟁을 해서는 안 된다.
- 글로 쓰는 편이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경우도 있다.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본인의 감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권유한다.

활동 제언



-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 서로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을 여러 개 그린 다음, 그 얼굴들이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지 자녀가 말해 보도록 도와준다.
- 자녀가 화가 날 때 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본다.



- 어떤 식으로든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본다. 여러분의 가족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리아호나』에서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련을 이겨 낸 이야기를 읽고 대화를 나눠 본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만일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기가 힘들다거나, 그들의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고 느낀다면,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아래 목록 중에 그 과정에 관한 조언이 담긴 기사가 있다.) 감독은 여러분이 교회 가족 서비스나 여러분 지역의 기타 상담 기관과 연락을 취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다! ■

추가 자료

-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6가지 방법」(2020년 2월호 『친구들』)
- 「자신에게 맞는 정신 건강 전문가 찾기」(2019년 1월호 『리아호나』, 온라인 전용 기사)
-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어려운 주제에 관한 대화」(2015년 3월호 『리아호나』)

이번 호 이야기

44 몸은 마비되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홀리에타 올메도

48 친구의 자살 이후 도움을 청하다
브릭스턴 가드너

온라인 전용

“왜”에서 “어떻게”로
리디아 타바에시나 피커드

모든 걸 잃은 것만 같았을 때 신앙을 찾는 방법
제니퍼 에나모라도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둡고 우울한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는 누구나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어둡고 우울한 시기를 겪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하필 지금? 이걸 어떻게 견뎌 내야 하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인도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제가 겪는 역경에 대해 불평하고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왼손 손가락을 모두 잃는 불행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시련을 감내하기는 무척 힘들었지만, **그 경험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가 일었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힘든 일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호 온라인 전용 기사에서 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44쪽에 나오는 기사에서 홀리에타는 우리가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리디아는 온라인 전용 기사를 통해 **우리의 시련에 감춰진 목적을 찾아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8쪽에서, 브릭스턴은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래도 정말 괜찮다는 점을 간증합니다.

저는 **모든 어려움, 곧 우리 삶의 어둡고도 우울한 모든 시간은 우리가 신성한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며, 그 목적이란 우리를 연단하고 변화시켜 언젠가는 결국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임을 온 마음을 다해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제니퍼



AIPI GETTY IMAGES

청년 성인



몸은 마비되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총상 때문에 몸이
마비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홀리에타 올메도

나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사랑했고, 특히 축구를 좋아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축구를 했던 나는 언젠가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서 아르헨티나 국가 대표로 출전하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은 열다섯 살 때 산산조각이 났다. 세미나리 선생님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리 동네 조직폭력배 두 명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나는 빛나간 총알에 등을 맞았다.

다음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질문

몸이 회복되어 가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은 내게 몸은 좀 어떻냐고 묻곤 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기에,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키곤 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은 내게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다시는 걷지 못하리라는 것과 몸이 마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무렵에 나는 세미나리를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다시 활동적으로 지내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세미나리는 내가 교회에 돌아오도록, 또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 준 버팀목이 되었다.

세미나리에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라는 질문을 해서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선생님은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상황을 견뎌 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세미나리 선생님이 알려 주신 질문은 내게 많은 힘이 되었다. 희망을 잃고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나는 항상 그 질문으로 돌아갔다.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매일 아침 나를 깨워 주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나를 끌어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덕택에 나는 나를 쓴 사람에 대한 분노를 지울 수 있었다. 그 사람은 결국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로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떠한 악의도 느끼지 않으며, 그가 변화해서 기쁘다고 답장했다.

새로운 열정을 찾다

총상을 입고 몇 년 간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운동을 하던 시절이 그리웠지만,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변형된

종목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운동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다. 새로운 종목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몸이 마비되기 전에 축구에 쏟았던 것과 같은 열정을 쏟았다.

얼마 안 가서 나는 휠체어 농구라는 종목을 찾아냈고, 축구만큼이나 그것에 푹 빠지게 되었다. 수많은 경기와 연습 끝에, 나는 결국 아르헨티나 국가 대표로 선발되었다. 국제 경기에서 상대 팀들과 강도 높은 경쟁을 벌이는 것이 정말 좋았다.

나는 2014년 장애인 남미 게임에 휠체어 농구 여자 국가 대표팀으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땀다. 2015년에는 콜롬비아에서 열린 남미 선수권 대회에서 경쟁하여 은메달도 땀다. 2015년 캐나다에서 열린 파라팬아메리칸 대회에 출전해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16년 장애인 올림픽 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나중에는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서 2018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대회에 출전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파라팬아메리칸 대회에도 출전했다.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 축복들

지금도 종종 의욕이 떨어지는 때가 있고, 매일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훌륭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내 삶에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 주셨고, 그들은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당당히 마주하도록 도와주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삶에 복음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고,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많은

희망을 잃고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나는 항상 그 질문으로 돌아갔다.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축복에 감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이 역경을 견뎌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남은 인생의 여로를 휠체어에 앉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어린 시절의 꿈들을 많이 이루어 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신앙을 잃지 마세요. 복음 안에 굳건히 남아 계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성취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 목표를 이루도록 나를 지지해 주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살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동안 여러 유혹이 닥쳐오기도 했지만, 복음 원리와 내가 세운 표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잃지 마세요. 복음 안에 굳건히 남으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루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술선수범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한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나는 몇몇 운동 선수들이 하는 다른 일들도 하지 않는다. 간증이나 성구를 전하는 건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려 노력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답을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별어진 힘겨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화가 나는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시련들에 대한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신다. 우리 세미나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도 종종 있다. 또한 곤란한 상황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시련 가운데에서 신앙에 매달린다면, 시련을 이겨 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고 힘을 얻을지도 모른다. ■
글쓴이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산다.

친구의 자살 이후 도움을 청하다

나는 우울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도움을 청하고 나서야 마침내 모든 것이 변했다.

브릭스턴 가드너

몇년 전 여름, 나는 일을 하던 중 친한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는 충격에 빠졌고,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책상에 멍하니 앉아 아무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난다.

온갖 생각과 감정이 밀려들었고, 온통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곧 이겨 낼 수 있으리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후로 몇 달간은 감당할 수 없는 우울함과 슬픔에 잠겨 허우적거렸다. 많이 울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다. 기쁨은 아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날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거나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경전을 읽어도 마음이 무미건조했고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내 감정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은 내가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말을 걸거나 도움을 주려 했지만, 나는 항상 거절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많은데, 왜 굳이 내 걱정거리까지 신경을 쓰겠어?' 그게 내 생각이었다.

내 슬픔이 너무도 버겁게 느껴지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성찬식 모임 중에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모임이 끝나자, 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리나케 복도로 나갔다. 현관문에 도착하기 직전에 나는 몇 년 전에 자살로 아들을 잃은 우리 와드의 한 자매님과 마주쳤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영은 지금이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라고 말했다.

나는 두려웠으나, 떨리는 목소리로 그 자매님을 불러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최근에 있었던 일과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자매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런 후 그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팔을 붙잡고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이건 절대 형제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형제님은 아주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둘 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치 먹구름이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내 삶에 빛줄기가 내려오는 듯했다. 그 자매님이 그날 복도에서 해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감정을 솔직히 나눌 때 마침내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선지 나는 모든 일을 혼자 해낼 수 있으며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미처 깨닫고 있지는 못했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모세서 7:18)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곧 상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상대의 고통이 되는 것임을 배웠다.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기꺼이 도움을 받는 것도 의미한다. 그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내 상황은 변화되었고, 결국은 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진심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각고의 노력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는 이 모든 일을 거치며 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기도, 봉사, 약점, 겸손, 치료, 셀 수 없이 많은 축복, 그 외의 수많은 것들 덕분에 나는 현재의 내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을 겪는 동안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 절친한 친구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도움을 청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것이 내게 치유의 열쇠가 되었기 때문이다. ■



브릭스턴 가드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랐으며 지금은

브릭검 영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브릭스턴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헬스를 하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는 걸 좋아한다.

처음에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게 힘들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전학을 가야 하는 데다 세미나리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숙제와 다른 일들도 많아서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건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세미나리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은 숙제를 할 시간이 항상 충분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다시 세미나리에 갈 생각을 하면 언제나 신이 나요. 친구들과 저는 세미나리를 하는 동안 서로 돕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미나리에서 느끼는 행복은 성전 안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과 정말 비슷해요. 언니와 오빠, 친구들이 다 성전에 갈 때, 저는 나이가 11살이 되기 전이라 가지 못했어요.

마침내 나이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 대리 침례 의식을 받았을 때, 저는 아주 큰 평안을 느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인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미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걸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어요.

소피아 디, 14세, 콜롬비아



이번 호 이야기



- 52 회복을 통해 여러분이 받게 되는 축복
데일 지 렌런드 장로
- 56 와서 나를 따르라: 몰몬경 니파이후서 3장에 나오는 네 명의 요셉을 만나보자
- 58 나는 배를 지어야 했다
후안 파블로 비야르 장로
- 6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 62 질의응답
교회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왜 몰몬경이 필요한가요?
-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나는 시현을 보았다
조셉 스미스

회복을 통해 여러분이 받게 되는 축복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복된 복음이 있기에,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에서, 주인공 테비에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한 가지 유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통이 있기에,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지요.”¹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전통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이 일어났기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한 지식을 알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열네 살의 조셉 스미스가 처음으로 하늘의 시현을 본 후로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현은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조셉은 자기 영혼의 복리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었고,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고자 하였기에 미국 뉴욕주 북부의 집 근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조셉은 구하던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 24년에 걸쳐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진리가 있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조셉은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

하나님께서서는 조셉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오랜 시간 동안 알고 계셨으며, 그 시간만큼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발전하여 그분과 함께 승영할 신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이는 즉, 여러분에게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²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회복된 이 심오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³ 오랫동안 교회의 회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자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한 동기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당신의 일과 영광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 곧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발전의 궁극적인 결과는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베냐민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라].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모사이아서 2:4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친절하시며,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전하려면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고, 직접 경험을 하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어린이나 사춘기 청소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맹목적으로 순종하도록 훈련된 애완동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따를 것을 선택하고, 경험을 통해 성숙함으로써 성장하기를 바라시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⁵ 이것이 여러분의 신성한 운명입니다.

회복된 교리는 조셉 스미스의 단순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진리들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첫째,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따르기를 기대하십니다. 둘째, 그분은 다른 이들이 그분의 계획에 대해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돕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우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 삼분의 일이 이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상에 오기를, 육신을 얻기를, 스스로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그 계획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리라는 것을 아셨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구속받지 않는 한, 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할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을 위해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죄와 실수를 대속하셨습니다.⁶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자비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하시기 위해 (모로나이서 7:27)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택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니파이후서 2:5)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로서(교리와 성약 58:28 참조)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실수를 범하는 경우,

회복된 진리가 있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회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회개가 가능해졌으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⁷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회개합니다. 회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회개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회개함으로써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언하신 대로 “이것이 … [아버지의]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만민에게 주는 구원의 계획”입니다.(모세서 6:62)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신앙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모세서 6:59)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시는 두 번째 중요한 기대는 바로 다른 이들이 그분의 계획에 대해 배우고 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집합”이라고도 부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특별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도록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합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지상에 보내진 것입니다.”⁸

이 성약의 의무를 완수한다면 여러분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⁹,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¹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기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년 전 뉴욕주 북부

스미스 농장 근처 숲에서 시작된 회복을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우리의 삶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의미를 띠기 때문입니다. 조셉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계시는 오늘날에도 주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성스러운 잠재력을 실현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상에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사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

주

1. Joseph Stein, Jerry Bock, Sheldon Harnick, *Fiddler on the Roof*(1964), 3.
2.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영들과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며, 그분이 다른 영들보다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셨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0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4. 모세서 1:39 참조.
5. 테일 지 렌턴드, 「오늘 택하라,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04쪽.
6. 이사야 53:3-12 참조.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셨다고 10차례나 언급하였다.
7.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부정한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따라서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 피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니,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될 수 있다. (모세서 6:57, 59)
8. 러셀 엠 넬슨 회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9. 교리와 성약 18:15-16 참조
10. 교리와 성약 4:2, 4; 31:5; 36:1; 60:7; 62:3; 84:61 참조.

니파이후서 3장에 나오는 네 명의 요셉을 만나 보자

여러분은 요셉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무려 4,000년 전에 조셉 스미스에 대해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니 파이후서 3장에 언급된 요셉 [Joseph]을 모두 구분할 수 있겠는가?[성경에 나오는 이름 요셉과 영어 이름 조셉은 모두 발음 방식만 다를 뿐 철자가 똑같다—웁긴이] 리하이는 자기 아들 요셉 [Joseph]에게 아버지 조셉 [Joseph]을 따라 이름이 지어진 조셉 [Joseph] 스미스에 관하여 애굽의 요셉 [Joseph]이 예언한 것을 일부 들려주었다.

애굽의 요셉은 조셉 스미스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주님께서서는 애굽의 요셉에게 영감을 주어 수백 년 후를 내다보게 하셨다. 요셉은 조셉 스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말했다.

- “한 선견자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니, 그가 내 허리의 열매들에게 뛰어난 선견자가 되리라.” (6절)



주전 약 600년경

므낫세의 후손인 리하이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해 동안 광야를 여행했다. 거기서 리하이와 그의 아내 새라이아는 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주전 약 1700년경

야곱(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 살았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 “또 그가 모세와 같이 크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며, 이 모세는 내가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너희에게 일으키겠다 말한 자니라.”(9절)
-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네 허리의 자손들에게 나의 말을 가져다 주게 하며, 나의 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비롯하여] 그들 가운데 이미 나아갔을 나의 말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리라.”(11절)
-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며, 곧 나의 일이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시작될 날에 너를 회복하기에 이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13절)
- “**그 선견자들** 주께서 축복하시리니 그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이 좌절될 것이라.”(14절)

- “그의 이름은 나를 따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15절)

조셉 스미스는 어떤 면에서 애굽의 요셉과 비슷한가?

애굽의 요셉은 기근에 대비해 식량을 비축하는 일을 감독하도록 바로의 명을 받았다. 기근이 닥치자, 애굽과 다른 지역의 백성들이 식량을 사러 요셉을 찾아왔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성지에서 애굽으로 왔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식량을 얻고 애굽에서 살도록 허락하였다. 이 일로 그들은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겪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굶주려 있었다. 조셉 스미스는 그 기근에서 우리를 구하도록

리하이는 애굽의 요셉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반이 갖고 있던 낫쇠판을 가져오도록 명하셨다. 낫쇠판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남긴 기록이 담겨 있었고, 그중에는 애굽의 요셉이 쓴 기록도 있었다.

주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다. 그 일은 주님의 복음과 신권을 회복하여 우리의 영적 구원에 필요한 의식들을 받게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주후 1805년

조셉 스미스 이세는 1805년 12월 23일에 버몬트주에서 태어났다. 1820년,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애굽의 요셉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몇 년 후에 조셉은 몰문경을 번역하고 출판했다.(니파이후서 3:11 참조)

주후 1771년

조셉 스미스 일세는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다.



나는 배를 지어야 했다

니파이의 경험은 제가 삶에서 겪는
역경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문: 니파이
삽화: 아셀 란겐



후안 파블로
비야르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제가 선교 사업을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두 분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 형인 이반과 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열여덟 살에 침례를 받았고 일 년이 지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선교 사업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제가 돌아왔을 때 대학 학비를 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봉사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 동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향해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는 경고하셨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는 학비를 대 줄 수가 없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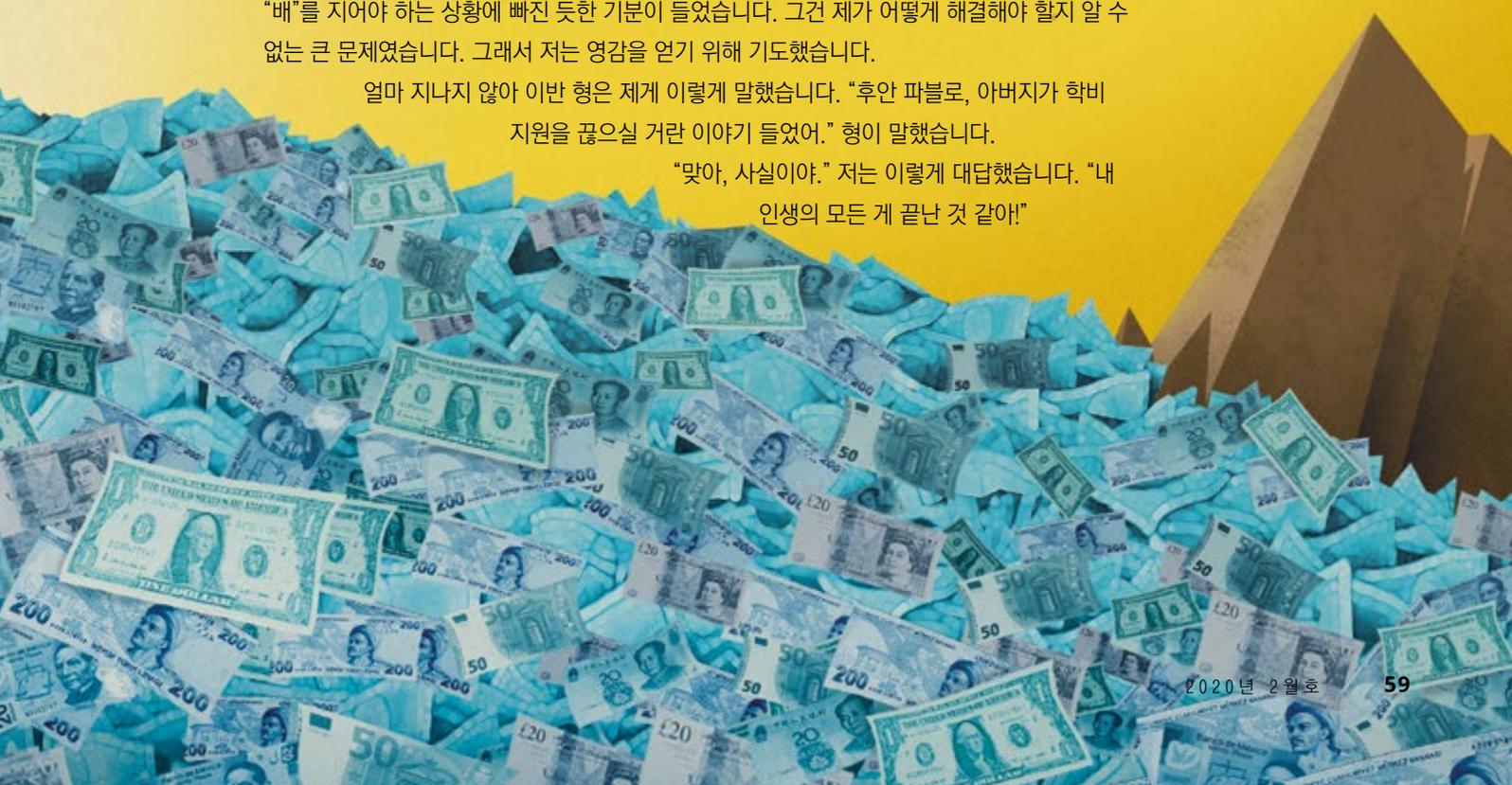
어떻게 이룰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사업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학업과 일

그때 물문경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던 니파이는 배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니파이전서 17:8, 49~51 참조) 이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배”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반 형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안 파블로, 아버지가 학비 지원을 끊으실 거란 이야기 들었어.” 형이 말했습니다.

“맞아, 사실이야.”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이때 형은 간단하면서도 저에게 영감을 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너,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 봤어? 그렇게 하면 학비를 낼 수 있을 거야.” 형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곧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니파이와 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니파이는 ...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배를 짓지도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방식을 따라 배를 지었나니.”(니파이전서 18:2)

만약 제가 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학업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형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학업을 계속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가끔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분께서 어떻게 저에게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축복해 주셨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생 신분으로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나중에 학위를 거의 마쳐 갈 즈음에는 제 전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마쳐야 해요.”

저는 다시 니파이를 생각했습니다. 형들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니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니파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그는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배를 인도하여, 우리는 다시 약속된 땅을 향하여 항해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날 동안을 항해하고 난 후에 우리는 약속된 땅에 도착하였으며.”(니파이전서 18:16, 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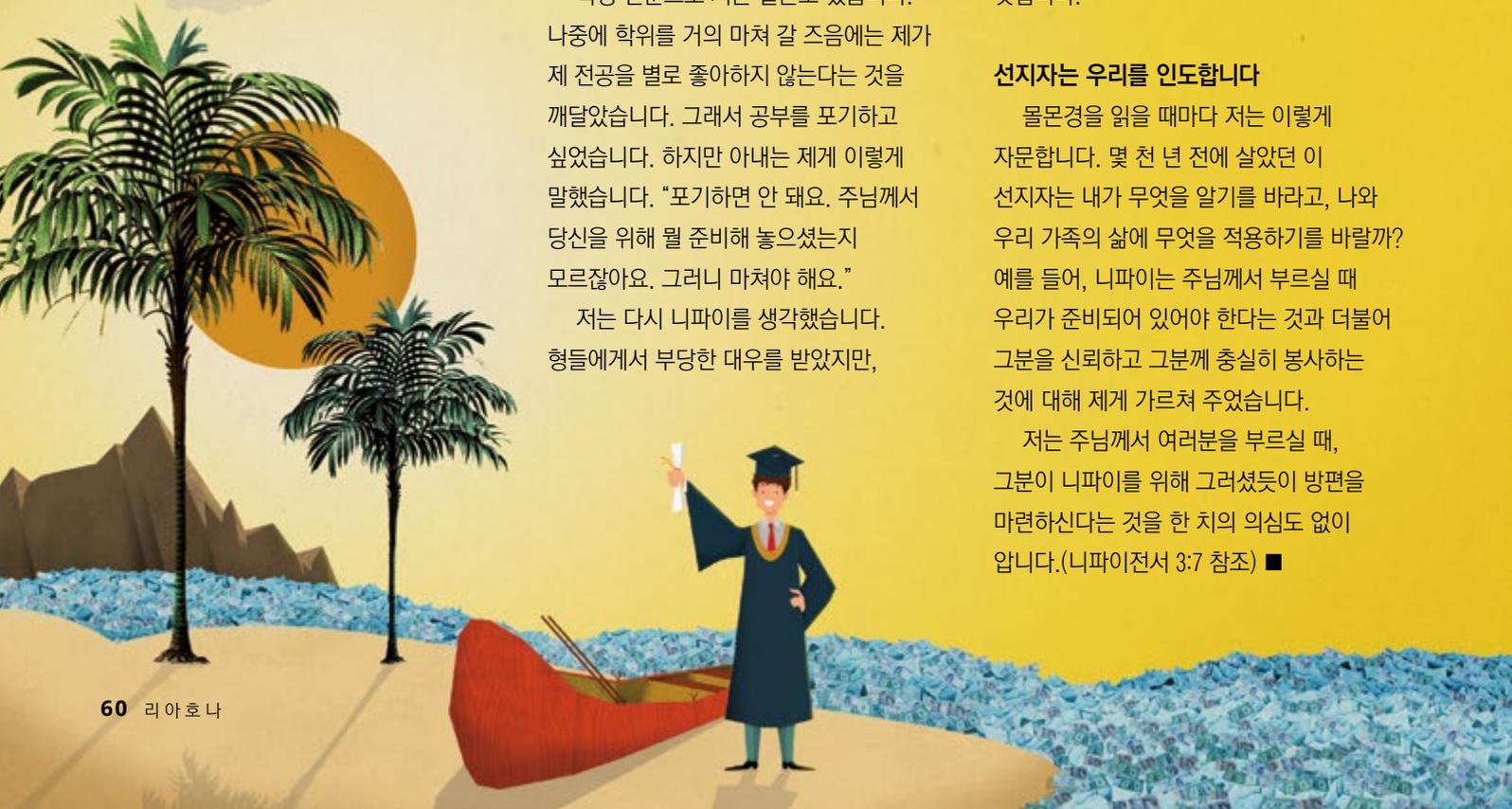
아내의 조언에 따라 저는 학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고 대학원에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처음 받은 질문 중 하나는 학사 학위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마쳐야 해요.” 만약 제가 학사 학위를 마치지 않았다면 석사 학위를 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물문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몇 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고,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무엇을 적용하기를 바랄까? 예를 들어, 니파이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실히 봉사하는 것에 대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분이 니파이를 위해 그러셨듯이 방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압니다.(니파이전서 3:7 참조)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그분은 살아 계신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마태복음 28:6 참조)
- 그분은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계신다. (누가복음 24:39;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럽고 불멸이다.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딸들이다

다른 세상들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모세서 1:35 참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신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교리와 성약 76:22~24;
강조체 추가.

우리는 그분을 보았다

- 하나님께서는 항상 증인을 부르시는 방식을 따르신다. (사도행전 5:32 참조)
-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후기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세서 1:33 참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하늘의 음성은 대개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며, 다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마태복음 3:17; 제3니파이 11:7; 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교회 사람들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즐겁게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특이한 행동으로 서로를 시험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배우며, 개념 있는 품행과 고상한 언어를 익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들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42:45]”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가 필요한 이유」,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09쪽.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 회원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저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저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며, 저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음대로 생활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과 저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을 기억했습니다.

에리카 와이, 18세, 미국 하와이주

모두를 존중하세요

우리 모두 다른 배경과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로건 비, 15세, 미국 오리건주

지도자와 이야기하세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애셔 디, 15세, 미국 워싱턴주

제시된 의견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공식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이 구절은 저의 불안전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구주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마 에프, 15세, 아르헨티나 차코

와드 가족과 잘 지내세요

교회 회원들과 관련된 상처나 분노로 힘들어했지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 대해 신경 쓰는지 갈수록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드 가족이 가져다주는 기쁨 덕분에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겁니다.

소피아 디, 16세, 영국 브리스틀

다음 질문

“저는 경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20년 3월 15일 월요일까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세요.)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몰몬경이 필요한 이유를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몰몬경을 준비하셨으며 우리에게 몰몬경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여기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설명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몰몬경에는 인생에서 가장 알고 싶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들어 있다.
-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친다.
- 몰몬경은 성경에서 사라진 “명백하고 소중한” 여러 진리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밝혀 준다.(니파이전서 13:29~33)
- 몰몬경에서 우리는 다른 어느 출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가장 완전하고도 신뢰할 만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 몰몬경은 흠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가르친다.
- 몰몬경은 대적의 전술을 알려 준다.(니파이후서 26~33장 참조)
- 몰몬경은 잘못된 종교적 관행을 불식한다.
- 몰몬경은 계시가 성경 시대에서 끝났으며 현재 하늘은 닫혀 있다는 잘못된 개념을 영원토록 종식시킨다.

(러셀 엠 넬슨, 「몰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62쪽)

나는 시현을 보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
제1대 교회 회장

1820년 봄, 열네 살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조셉은 응답을 얻기 위해 경전을 읽었다. 조셉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그디어 나는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렀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결심[에] ... 따라 나는 그렇게 해 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일천팔백이십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다.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고, 한동안은 내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자 내 온 힘을 다하면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리얏아 멸망에 ... 금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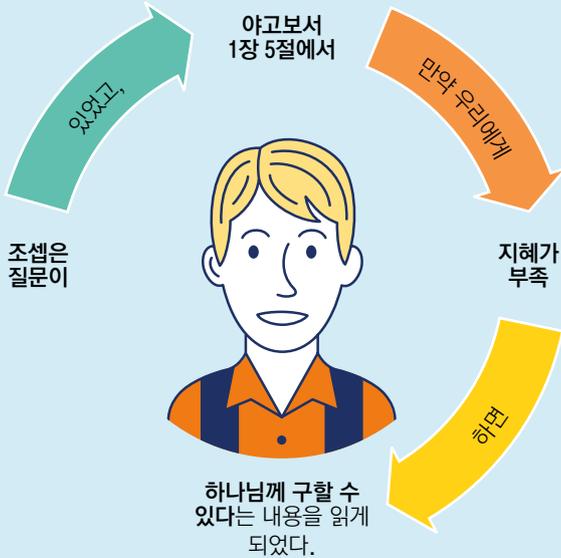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 ...

...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 나는 시현을 보았다[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

조셉 스미스—역사 1:13~17, 25에서 발췌함.

진리를 구하는 방법

무엇이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따를
방법을 보여 주었다.



조셉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여러분의 간구는
무엇으로 이어질 것인가?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응답을 구하는가?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지를
알려 주었다.



“...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약함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



여러분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발췌)

첫번째 시현
200주년을 기념하며

2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다. 이번 호에 실린 몇몇
기사들을 읽어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성인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42

청소년
회복과 청소년

52, 61, 64

진리를 찾는가?
이 방법을 따라 보라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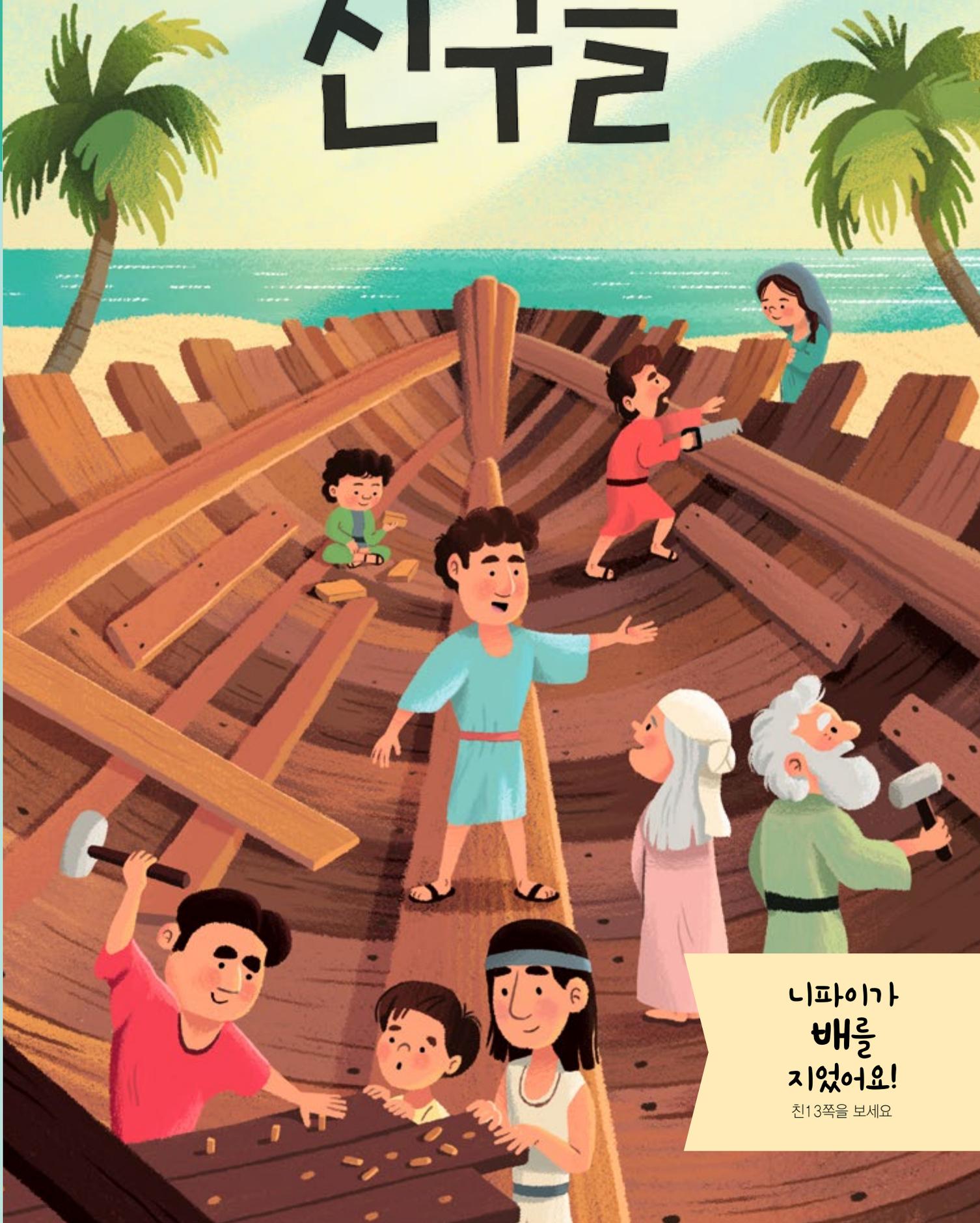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감정을 느낄 때

40, 친6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친구들



니파이가
배를
지었어요!

친13쪽을 보세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가서 행하십시오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일자리를 잃고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부에는 나이가 많은 노르웨이 출신의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웃들에게 낡은 옷들이 있으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매님은 그 옷들을 세탁하고 다림질을 한 뒤, 종이상자에 담아

뒷문 옆에 두셨습니다. 옷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길 아래 끝 집으로 가 보세요. 거기 사는 부인이 당신에게 필요한 걸 줄 거예요.”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일을 알아내고, 실천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하나님의 자녀 수백 명이 그 자매님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몰몬경에서 니파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니파이전서 3:7)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이 요청하신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가서 행할 때,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



누군가를 돕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70~73쪽에서 발췌함.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간절히 ♩ = 80-88

작사 및 작곡: 스티븐 피 생크

B \flat E \flat B \flat E \flat B \flat E \flat B \flat E \flat

1. 어 린 시 절 예 수 진 리 로 자 라
 2. 예 수 수 님 아 가 려 매 일 일 힘 쓰 며
 3. 예 수 수 님 아 가 려 매 음 성 따 르 리

B \flat E \flat B \flat Cm7 F B \flat E \flat

하 나 님 과 사 람 들 - 사 랑 했 네 나 를 인 도 하 려
 그 받 자 취 따 르 길 - 약 속 하 리 구 주 인 도 하 서 위
 그 분 상 내 내 결 에 함 께 하 셔 힘 과 도 음 으 안

B \flat E \flat Cm B \flat E \flat F

길 보 이 시 머 매 일 함 께 걸 자 고 부 르 시 네
 보 호 받 으 며 종 하 고 그 의 사 랑 나 누 리
 내 계 주 시 고 영 원 하 살 며 발 전 케 하 시 네

후렴 B \flat E \flat F B \flat Gm Cm7

하 늘 본 향 향 해 주 와 걸 을 때 그 분 영 과 사 랑 으 로 날

F7 B \flat Gm Cm7 D7 Gm

축 복 하 시 리 변 화 된 맘 으 로 나 알 게 되 리 니

E \flat B \flat Cm7 F7 B \flat E \flat B \flat E \flat B \flat

예 수 님 과 함 께 - 늘 걸 어 가 리 라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팔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이 문구는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야 함.

계속 달려 조시!

줄리언 도먼
실화에 근거함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히브리서 12:1)

조시는 뛰다가 속도를 늦추고 걸으면서 하품을 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달리기 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조시가 몇 달 동안 고대해 왔던 날이죠. 하지만 조시는 몸을 푸는 동안 들뜬 마음 대신 피곤하기만 했어요.

“좀 어때?” 조시의 언니인 크리스틴이 물었어요. 크리스틴과 조시는 다리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풀밭 위에 앉았어요.

“오늘 진짜 피곤해.” 조시가 발끝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조시는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날 밤 밀린 공부를 하느라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팀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는데 말야.”

조시의 말에 크리스틴은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제 시작하나 보다!”

두 사람은 팀원들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다른 선수들과

출발선에 선 조시는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조시는 자신이 어느 때처럼 빨리 달려 줄 거라 기대하는 팀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팀별로 가장 빨리 달린 다섯 명의 기록에 따라 팀의 결승 진출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경기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나기 전에 조시는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탕! 선수들은 출발선을 박차고 나가 앞으로 뛰었어요.

조시도 양팔을 휘두르며 보폭을 넓혔어요. 상위권에 들려면 초반에 치고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처음에 조시는 다른 선두 주자들과 나란히 달릴 수 있었어요. 속도를 더 내고 싶었지만 도통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를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뒤에 있던 선수들이 조시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조시가 다른 선수들을 앞질렀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포기할까?’

다른 선수가 지나쳐 가는 소리를 들으며 조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계속 달려, 조시!” 조시 옆을 지나쳐 가던 다른 선수의 목소리였어요.



조시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선수는 조시를 보며 방긋 웃어 주었어요. 그 친구는 조시의 팀원 중 한 명이었어요.

“할 수 있어!” 다른 팀원도 조시 옆을 지나쳐 가며 말했어요. 팀원들은 한 명씩 조시를 지나쳐 가며 계속해서 달리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자 조시는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았어요. 상위 다섯 선수에는 뽑히지 못하더라도 경기를 끝까지 해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조시는 한 발 한 발 집중하며 결승선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결승에 ... 올라가야 하는데 ... 도움이 못 돼서 ... 미안해.” 조시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우리 팀이 출전 자격을 얻었다!” 조시의 코치님이 팀원들 쪽으로

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크리스틴은 조시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날 밤, 조시는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며 팀원들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줬는지 생각했어요. 팀원들의 격려 덕분에 조시는 포기하고 싶었을 때 계속 달릴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조시는 고개를 들어 침대 위에 걸려 있는 예수님 그림을 보았어요. 조시는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똑같이 해 주시는 거야. 조시는 자신을 응원하는 구주를 상상하며 빙그레 웃었어요. “계속 달리렴, 조시!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여기 있단다.”

조시는 인생의 경주에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어요. 예수님이 응원해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6가지 방법

행 복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분을 나타내는 표정을 색칠하거나 그런 표정의 얼굴을 새로 그려 보세요. 그런 다음, 기분이 나아지는 아이디어들에 색을 칠해 보세요.



난 화가 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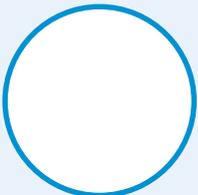
난 무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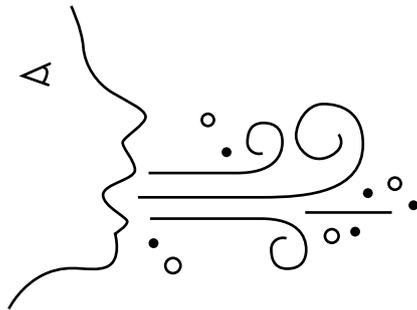
난 슬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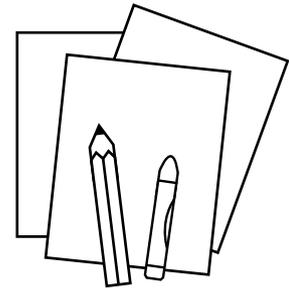
난 걱정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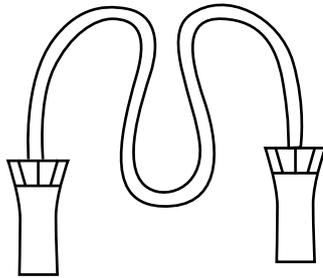
난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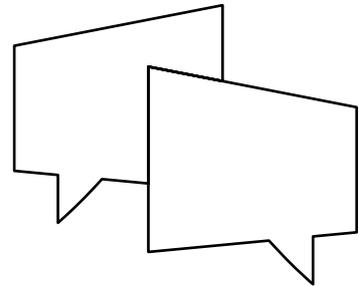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세요.
몸을 편안히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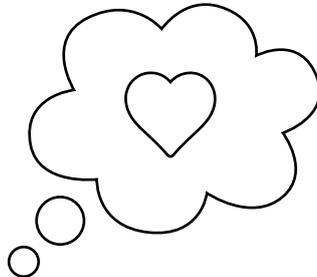
자신의 기분을 일지에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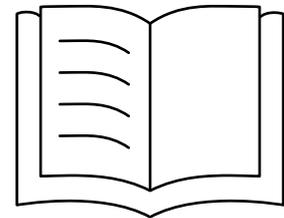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친절히 대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기도를 드리고, 경전 구절도 몇 개 읽어 보세요.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니파이후서 25:26)

삽화: 제프 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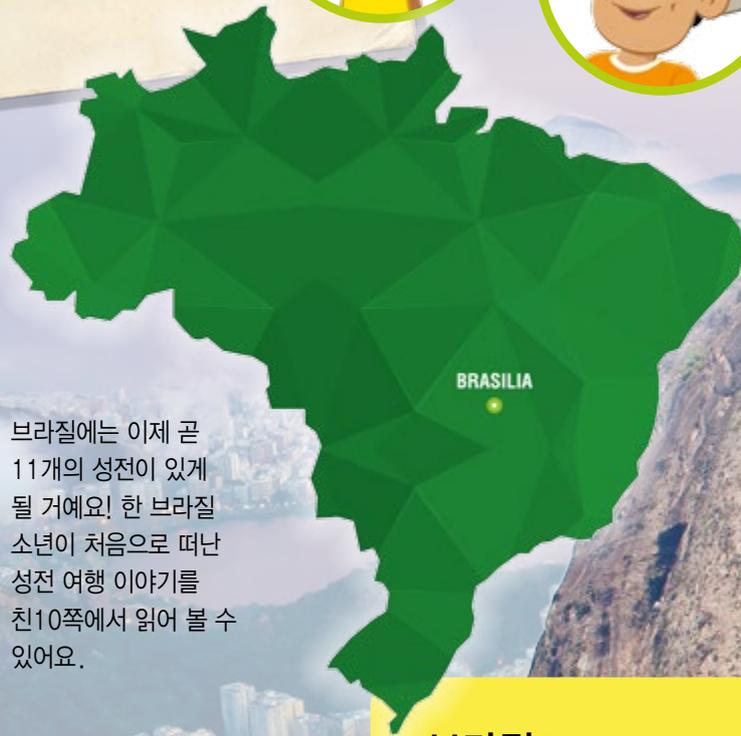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여기는
브라질이에요!



우리는 마고와
파올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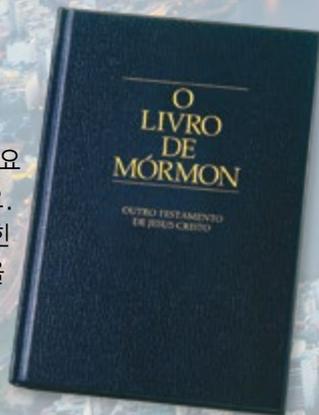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 배우려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브라질로
떠나 볼까요!



브라질에는 이제 곧
11개의 성전이 있게
될 거예요! 한 브라질
소년이 처음으로 떠난
성전 여행 이야기를
친10쪽에서 읽어 볼 수
있어요.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이곳에는 백만 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살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는 포르투갈어예요.
이 물문경 표지에 적힌
포르투갈어는 물문경을
뜻해요.





축구는 브라질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아마존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아마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도 우거져 있어요!
수많은 멋진 동물들의 집이 되는 곳이죠.



리우데자네이루 도시 근처의 산꼭대기에는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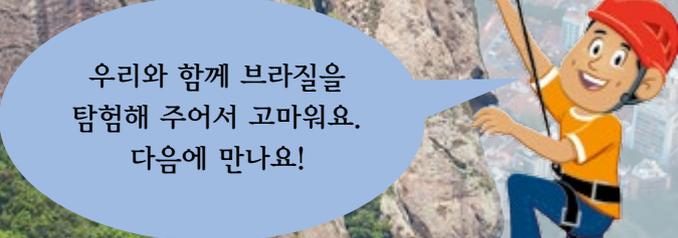
브라질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 볼까요!



저는 여동생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교회에 가는 게 좋아요. 가족들과 성찬식에 참석해 있을 때면 구주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져요. 초등학교 있을 때에도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야고 브이, 4세, 야고의 여동생 라이스, 2세, 브라질 미нас 제라이스



침례받기 전에 저는 물에 몸이 잠기는 걸 무서워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요.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해 주실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듣자 엄청난 용기가 불끈 솟아났어요.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침례를 받던 날은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았던 날 중 하나였어요.
아나 루이자 엠, 9세, 브라질 파라나



우리와 함께 브라질을 탐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브라질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좋아요!

이탈로를 위한 성전

이탈로는 성전 안에 정말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새이디 루드로우

실화에 근거함

“나 성전 보고 싶어 언젠가 갈거야”(『어린이 노래책』, 99쪽)

이탈로는 와드 성전 방문 때문에 신이났어요. 이탈로의 와드는 브라질 레시페 성전에 갈 계획이었어요. 그곳은 무려 열다섯 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이탈로는 엔리케 형과 부모님과 함께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탈로는 엄마가 해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밖에서 봤을 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년에는 성전 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는 나이가 될 거야.”

이탈로는 성전에 가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탈로의 가족이 사는 포르탈레자에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는 있었지요. 정말 멋졌어요!

이탈로 가족은 점심을 먹기 위해 차를 멈췄어요. 이탈로는 밥과 오렌지가 곁들여

나온 검은콩 스투인 feijoada(페이조아다)를 먹었어요. 페이조아다는 이탈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점심을 먹는 동안, 이탈로는 계속 성전을 생각했어요. 포르탈레자 성전이 현납되면, 이탈로의 가족은 성전에 자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운전해서 가지 않아도 되지요.

해가 질 무렵, 이탈로의 가족은 레시페 성전에 도착했어요. “Que bonito(께 보니또, 예쁘다!)” 이탈로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이탈로는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이탈로를 어린이 대기 장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엄마는 “아직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성전 정원에서 특별한 영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보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친절한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에서



기다리는 이탈로와 다른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아이들은 Livro de Mórmon

(리브로 데 모르몬, 몰몬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경전을 읽는 건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 좋은 방법이야.' 이탈로는 생각했어요. 이탈로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심이 됐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 이탈로는 생각했어요. '이곳은 평화롭구나.'

성전 봉사자들은 이탈로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성전 정원으로 갔어요. 그때 이탈로는 성전 입구 위에 있는 글귀를 봤어요.

"Santidade ao Senhor. A casa do Senhor"
"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탈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 방문이 끝나고 이탈로와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탈로는 성전에서 느낀 기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탈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때로 이탈로는 자신이 글보다 그림으로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림으로 그려서 엄마 아빠께도 보여 드렸어요.

이탈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탈로는 그 그림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자기 방에 두었어요.

"저는 준비하고 싶어요." 이탈로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성전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배

경전에는 배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이야기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나는 누구일까요?

각 인물을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와 짝지어 주세요.

1. 저는 지구에 홍수를 보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 가족과 동물들을 태울 거대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는 방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2. 폭풍우가 몰아치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3. 저는 약속된 땅으로 가기 위해 형제와 함께 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배 안을 밝히기 위해 돌을 빛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4. 항구가 퐁퐁 얼어버린 탓에 우리의 배는 물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함께 있던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얼음이 깨져서 우리 배가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루시 맥 스미스



예수님의 제자들



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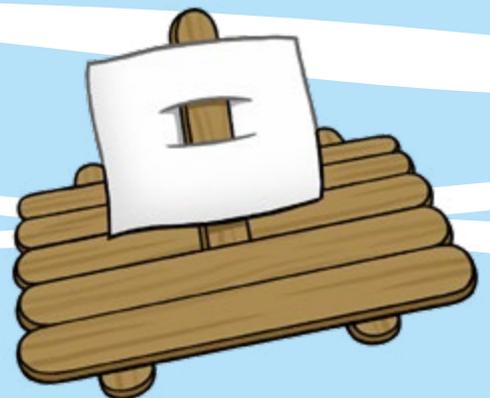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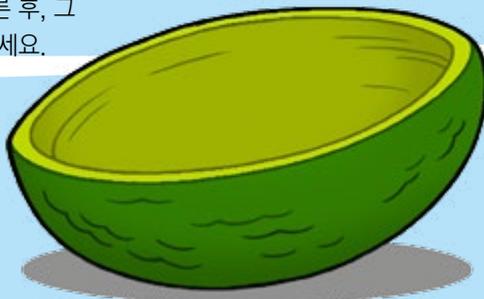


야렛의 형제

여러분의 배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배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른 후, 그 껍질을 배의 본체로 쓰세요.



- 공예용 나무막대 여러 개를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서 물에 뜨는 뗏목을 만들어 보세요.

니파이가 배를 짓다

니파이전서 17장 내용 일부를 연극으로 꾸밀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본.

해설: 니파이 가족은 광야를 지나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니파이에게 연장을 만들어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가 배를 짓고 있다. 레이맨과 레뮤엘이 등장한다.]

니파이: 우리가 탈 배를 만들고 있어. 형들도 와서 도와줘!

레이맨: 싫어! 그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레뮤엘: 바보 같은 녀석. 넌 그런 면이 아버지를 꼭 닮았어.

니파이: 주님이 우릴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모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말야! 정말 슬프다. 형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야?

레이맨: *[화를 내며 레뮤엘을 쳐다본다.]* 저 녀석을 바다로 던져 버리자!

[레이맨과 레뮤엘이 붙잡으려 하자 니파이가 뒷걸음질친다.]

니파이: 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니파이가 레이맨과 레뮤엘을 향해 손을 뻗는다. 레이맨과 레뮤엘이 몸을 떨다가 풀썩 무릎을 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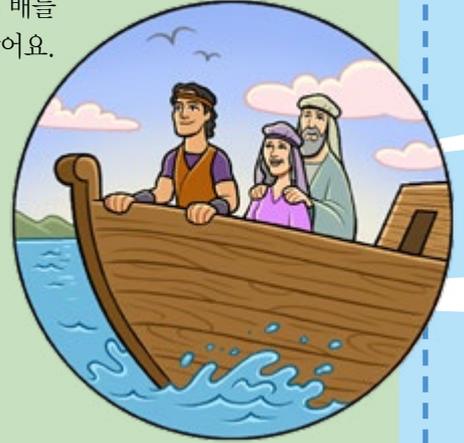
레이맨: 나 주님의 권능을 느꼈어!

레뮤엘: 나도! 몸이 마구 떨리더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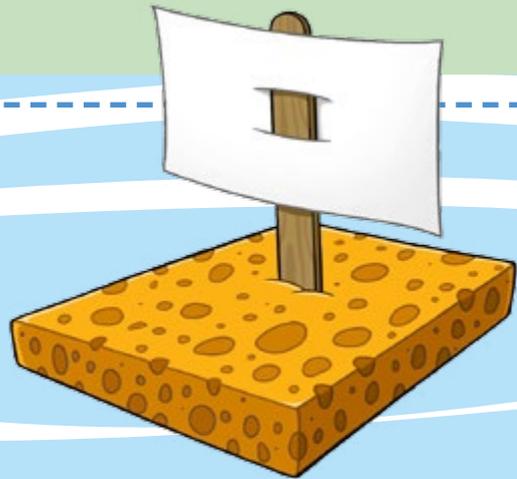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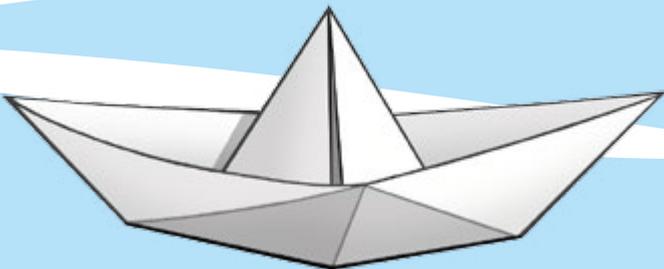
[니파이가 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니파이: 형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함께 배를 짓는 일을 마무리하자.

해설: 니파이와 그의 가족은 자신들이 타고 갈 배를 완성했어요. 그들은 그 배를 타고 약속된 땅으로 갔어요.



- 종이로 배를 접어 보세요.



- 배와 비슷한 모양으로 된 스펀지를 막대와 종이로 장식해 보세요.

물몬경 퍼즐

각 세로줄과 가로줄, 그리고 파란색 상자 안에 여섯 개의 그림이 각각 모두 들어가도록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이 상징들을 볼 때, 니파이 가족의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것들이 생각나요?

	<p>단서: 위의 여섯 개 상징 중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p>				

어린이 발표



저는 친구에게 교회나 활동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제이컵 케이, 12세,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침례를 받기 위해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선교사로 봉사했던 오빠가

저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아스트리드 브이, 8세, 페루 아레키파



린 피, 11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저에게는 통가에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론이 통가를 휩쓸어 버렸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가족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 장치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고, 정수 장치를 세 상자나 보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어요. 통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정수 장치가 넉넉해서 이웃들에게도 나눠 줄 수 있었지요.

칼리아 엘, 크리스토퍼 엘, 8세, 캐나다 서스캐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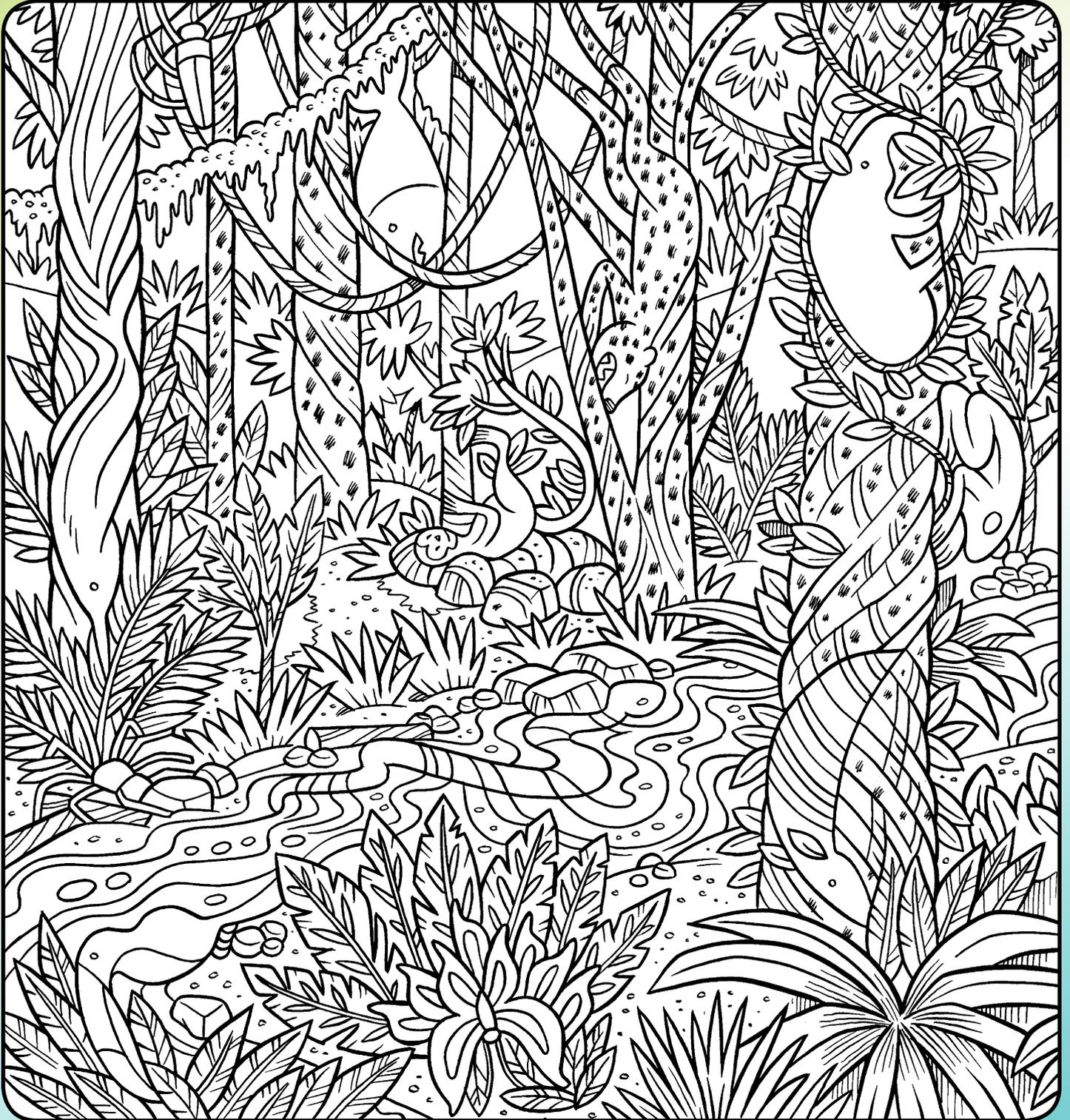
아르헨티나 산루이스주의 초등회 어린이들은 초등회 프로그램을 연습해서 즐겁게 발표했어요!



대만 핑첸 행정구에 사는 초등회 어린이들은 기도를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솜방울을 통 안에 넣었어요. 이 어린이들은 매주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느꼈으며, 어떤 기도를 드리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함께 이야기했어요. 이 어린이들은 아주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숨은그림찾기

브라질은 땅의 절반 정도가 열대 우림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열대 우림 그림에서 10마리의 동물들을 찾아 색칠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뒤표지를 보세요.



브라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친8쪽을 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가끔 저는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게 두려워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아크라에 사는 겁꾸러기가



사랑하는 겁꾸러기에게

무언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툴기 마련이에요!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해 볼 때 전문가처럼 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모험 중의 하나인 걸요! 엉망으로 되더라도 그냥 다시 해 보세요. 배우고 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니까요. 겁꾸러기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노력했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 선을 따라가 보세요.

델린 에이치 옥스
사도이자 대법원 판사



자신의 첫 번째 바이올린
선생님에게서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



베시 콜먼
유명한 비행기 조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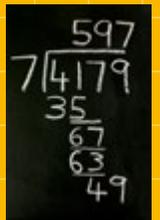
어린 시절,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거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거나 어떤 자리의
대표가 되거나 하는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진 비 빙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고,
특히 나눗셈을
어려워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전 세계적인 유명 작곡가



미국에 있는 모든
비행학교가 그녀의
입학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새로운 걸 시도해 보고 싶나요? 목표를 세울 때 『어린이 안내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목표가 금방 이뤄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베시 콜먼의 사진: ALAMY IMAGES

상자 안에는 뭐가 있을까?



로리 플러 소사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아 바는 자리에 앉아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긴 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온통 오비 자매님 의자 밑에 있는 상자만 보였어요.

상자는 반짝이는 파란색 종지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위에는 금색 리본이 달려 있었죠. 대체 뭘까? 아버지는 고개를 아래로 숙였어요. 상자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그 반짝이는 포장지 안을 보고 싶었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오비 자매님이 상자를 꺼내셨어요. 자매님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가 들어 있어요.” 오비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을 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주세요.” 자매님은 상자를 노아에게 건네셨어요.

노아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노아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는 빙긋 웃었어요. 그런 다음, 상자를 준에게 전달했어요.

아바는 모두에게 차례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친구들은 상자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모두들 빙긋 웃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중요한 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게 어떻게 저런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드디어 아바의 차례가 되었어요. 아바는 반짝이는 뚜껑을 열고 안을 보았어요. 그건 거울이었어요! 아바는 상자 안의 거울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러자 자신을 보고 있는 아바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바는 휘둥그레 커지는 자신의 눈도 보았어요. **아바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바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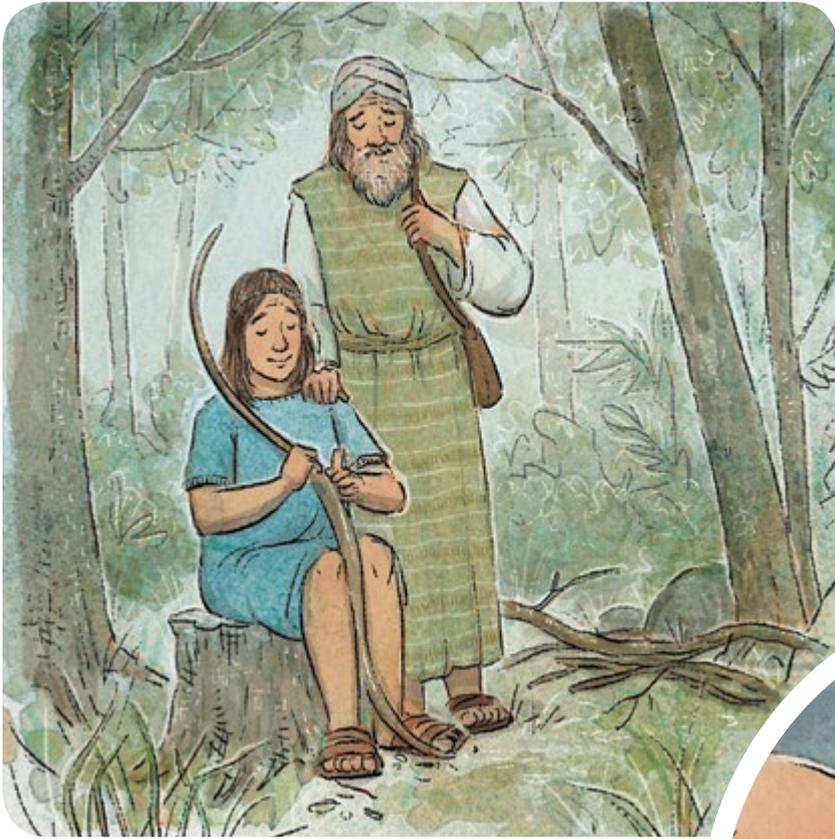
아바는 빙긋 웃었어요. 아바의 마음속에 따스함과 행복이 밀려왔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꼭 안긴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껴안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아바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어요! 아바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였어요. ●

아바는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아바는 무엇을 배웠나요?

니파이의 부러진 활



광야에 있던 어느 날, 사냥을 할 때 쓰던 니파이의 활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활이 없다면 어떻게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가족들은 막막하기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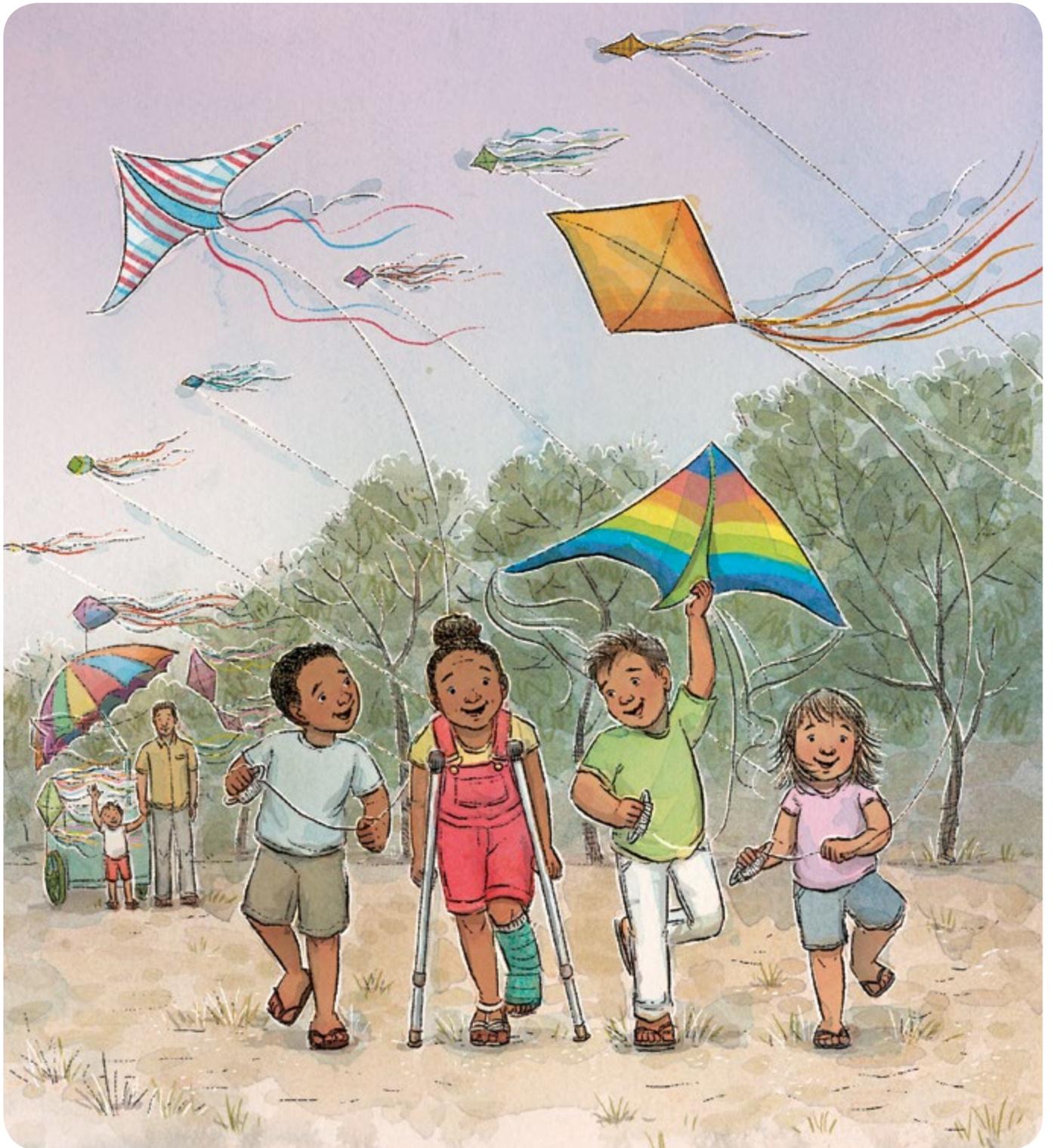
니파이는 신앙을 갖고
새로운 활과 화살을
만들었어요. 니파이의
아버지인 리하이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은 리아호나를 들여다보았어요.
리아호나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공이었어요. 그들이 계명을 지킬
때, 리아호나는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보여
주었어요.



니파이는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있었어요!



나쁜 일이나 슬픈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니파이전서 16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한 니파이



어떻게 하면 니파이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니파이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번 호 잡지에서 니파이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친2쪽에서 아이어링 회장님은 니파이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친12~13쪽을 활용해서 니파이가 배를 지었던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 볼 수도 있습니다. 친20~23쪽에서는 니파이의 사냥용 활이 부러졌던 이야기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니파이를 어떤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단어들로 묘사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나 충실하십시오!

『친구들』



친16쪽을 보세요.

자녀의 예술 작품이나 경험을 『리아호나』에 보내고 싶습니까?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또는 자녀의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그리고 "나 [부모의 이름]는 내 자녀가 제출한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교회 잡지, 교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문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차

-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가서 행하십시오
- 친4 계속 달려 조시!
- 친6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6가지 방법
- 친7 빛나는 아이디어
- 친8 안녕하세요? 여기는 브라질이에요!
- 친10 이탈리아를 위한 성전
- 친12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배
- 친14 재미있는 활동: 물문경 퍼즐
- 친15 어린이 발표
- 친16 재미있는 활동: 숨은그림찾기
- 친17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 친18 상자 안에는 뭐가 있을까?
- 친20 경전 이야기: 니파이의 부러진 활
- 친23 색칠하기: 하나님을 신뢰한 니파이

책 속에 숨어 있는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친구들』 표지
삽화: 리엄 다시